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더버빌가의 테스』에 나타난
성적 억압과 저항의식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金 成 美

2010年 8月

『더버빌가의 테스』에 나타난
성적 억압과 저항의식

指導教授 梁永洙

金成美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0年 8月

金成美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2010年 8月

<국문초록>

『더버빌가의 테스』에 나타난

성적억압과 저항의식

金成美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指導教授 梁永洙

본 논문은 하디에 대한 초기 비평론자들의 ‘결정론자’적 관점과 더불어 근래 활발하게 논의되어 지고 있는 ‘사회개량론자’적 관점을 개괄하였다. 또한 『더버빌가의 테스』의 여주인공 테스가 당대 남성중심 성이데올로기 속에서 겪어야 했던 성차별의 원인과 더불어 그녀의 주체의식의 성장과정을 통한 저항의식을 살펴보았다.

하디의 소설들은 우주적이고 불가항력적인 힘인 내재의지의 지배하에 수난을 겪는 비극적인 주인공들의 모습 속에 반기독교적이며 당대 도덕기준에 어긋나는 요소가 많았기 때문에 당시 많은 비평가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자본주의 유입에 의해 피폐되어 가는 농촌공동체의 모습과 그 속에서 비인간화되어 가는 인간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작품 속에서 담아내려는 작가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 하지만 하디는 이러한 변화를 단순히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고 체념하기 보다는 시대 변화의 양면성을 언급하면서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그 변화의 흐름에 합류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의 삶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인간의 의지의 발로로 여겼다.

이러한 의식을 기반으로, 2장에서는 단순히 테스의 우울한 작품 경향에 기인하여 운명론 혹은 결정론 등으로 평가되어져 왔던 비평적인 관점과 더불어 인간의 의지를 통한 더 나은 삶의 변화를 모색하고자 했던 사회개량론적 입장을 더불어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빅토리아조 시대에 여성이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어려움을 통해, 성이데올로기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어 주인공 테스의 불행을 야기하는 원인을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테스가 겪어야 했던 종교적, 사회적, 경제적 차별과 당시 인습에 젖어있던 자신의 내면적인 문제점들을 그녀 자신의 어떠한 정신적인 성장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극복해 내는가 하는 저항의식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았다.

하디는 인간이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고통의 순간들은 인간의 주체적인 의지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암시함으로써 억압에 대한 저항과 극복의 의지를 고취시키고 있다.



* 본 논문은 2010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목 차

국문초록

I. 서론	1
II. 억압적인 성이데올로기	7
1. 사회·종교적 인습	7
2. 자본주의 억압	19
3. 억제된 자아	24
III. 저항의식의 성장	34
1. 인습에의 저항	34
2. 기독교 의식의 거부	40
3. 주체성의 향상	44
IV. 결론	55
Bibliography	57
Abstract	59

I. 서론

토마스 하디(Thomas Hardy, 1840-1928)는 『더버빌가의 테스』(*Tess of the D'Urbervilles*)에서 급속한 산업화의 영향으로 전통적 인간성이 파괴 되어 가는 농촌 공동체 사회의 모습과 더불어 그 속에서 여성 주인공 테스가 겪어야 했던 억압적인 삶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 동안의 하디 소설 연구는 운명적 결정론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지만, 근래에는 주인공 자신의 주체의식의 성장과정을 통해서 억압과 모순에 찬 환경을 극복해 가고 개선해 나가는 개량주의적 관점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하디의 작품은 오늘날까지 수많은 비평가들에 의해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으며, 테스에 대한 초기 비평에서는 그녀의 불행한 사랑의 도정에 드리워진 어둡고 불길한 색채에 주목하였다. 도로시 벤 겐트(Dorothy Van Ghent)나 데이비드 세실(David Cecil)은 하디의 문학적 비전 자체가 인간이 우주의 무관심 속에 희생되는 존재임을 보여준다고 하였는데, 특히 데이비드 세실은 하디 문학에 있어서는 “우주의 무의식적 원리는 기독교의 신이 아니라 인간 생활과 운명을 지배하고 조롱하는 불길한 ‘제왕들의 총수’의 신이다”라고 언급하며 그 위력적인 힘 앞에 인간의 불행한 운명은 피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¹⁾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선 주목하게 되는 하디 소설의 특징 중의 하나는 인간은 스스로 자유의지를 행사하지 못하고, 불가항력적인 힘에 의해 그들의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하디의 소설 속 주인공들은 자연의 힘과 그들이 운명이라고 믿는 것들, 뜻밖의 우연, 자신의 본능적인 충동이나 욕망, 자신의 과거의 행태, 그리고 자신이 처해 있는 사회 안의 제도나 관습 앞에서 무력하고 보잘 것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 이러한 맹목적인 힘은 인간의 불행 앞에 무관심하고 무책임하며 비이성적이다. 인간은 결국 이러한 절대적인 힘 앞에 반항적 의식을 표출하지 못하는 무력하고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이 내재의지와 싸우다가 결국에는 패하게 된다. 결국은 자신의 운명이라고 믿는 틀 안에 갇혀 살다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즉, 하디 작품 속 인물들의 생애는 끝없는 절망과

1) David Cecil, *Hardy: The Novelist* (Ludhiana: Lyall Book Depot, 1975), pp. 151-152.

고통의 연속이며 작품의 결론은 비극으로 끝을 맺게 된다. 그들의 비극적인 운명은 마치 끊을 수 없는 사슬처럼, 어떤 특정한 사건에서 시작되어,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아무리 주인공 자신이 처한 불운한 상황을 벗어나려 노력해도 그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마치 바닥 모를 늪에 빠진 듯, 불운은 또 다른 불운을 낳는다. 인간이 가진 연민이나 동정은 운명의 힘 앞에 무력한 것이며, 운명은 그 사람의 상황이나 조건을 고려하여 다가가지 않는다.

하디는 이러한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운명의 힘, 즉 운명의 대행자를 내재의지(Immanent Will)라는 용어를 써서 나타내고 있다. 결정론을 지지하는 학자인 존 호스퍼스(John Hospers)는 “우리의 행위는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무의식적인 힘에 의해 이루어지며, 인간의 의지라는 것이 홀로 독립하여 고고하고 의연히 인간의 행위를 결정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도 알지 못하는 내면의 의식의 흐름에 의해 형성되어 온 것”이라고 주장한다.²⁾ 테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녀의 불행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한다. 그녀가 처한 사회의 관습들과 그녀를 둘러싼 자연, 과거의 행적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의 형질들, 그리고 뜻밖에 그녀의 삶 속에 찾아오는 우연한 상황의 일치가 운명을 결정짓고 불행한 삶의 방향으로 내몰고 있다.

하디의 이러한 비극적인 인간상은 그가 성장하면서 겪어 온 많은 외부적·내면적 요인들이 상호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선천적으로 허약한 체질을 타고났던 것, 특유의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 그리고 그가 살면서 겪어야 했던 개인적 소망의 좌절 등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산업혁명의 결과 하디가 살고 있던 도셋(Dorset) 지방에 불어 닥친 변화의 바람도 적잖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이곳의 독립적 소규모 생산양식을 유지하던 전통은 농지의 목초지화로 인해 19세기에 이르러 농민층이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또한 빈민구제법의 실시로 노동자의 임금이 하락하고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다니는 농업 노동자들은 도시로 이주하여 떠돌아다니는 도시 빈민이 되었다. 하디는 이러한 농촌의 변화와 위기들을 그의 작품의 주요 배경으로 삼고 있다. 그의 웨섹스 소설(Wessex Novel)³⁾의 부류에 속하는 작품 『숲의 사람들』(The Woodlanders)에

2) 채수환, 「하디의 『테스』에 있어 자유의지와 결정론」, 『근대영미소설』 제5집 제2호 (1998): 292.

서는 차지농이자 제조업자인 가일즈 윈터본의 죽음과 그레이트의 결혼 실패 등을 통해 농촌 중간 계층의 소멸과 변화하는 농촌 공동체의 결혼 문제를 그리고 있으며, 『무명의 주드』(Jude the Obscure)에서는 황량하고 희망 없는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여 이리저리 떠도는 노동자의 삶을 통해 당시 농촌의 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더버빌가의 테스』에서는 종신 차지농인 테스 아버지의 죽음으로 집과 토지를 잃은 테스가 농업 노동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 묘사를 통해 당시 농촌 중간계층이 소멸해 가던 농촌의 변화와 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하디는 또한 성직자를 꿈꾸던 어린 시절의 희망을 버리고 기독교에 회의적인 경향으로 돌아선 개인적 경험으로 부터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알베르트 페티그루 엘리어트(Albert Pettigrew Elliot)는 하디가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게 된 이유를 “전지전능하신 신의 은혜라는 관념을, 편재하는 악의 세상과 인간의 불행을 초래하기 마련인 환경에 조화시키는 것이 그에게는 너무 힘들었다”⁴⁾라고 설명한다. 하디의 가족들은 영국 성공회의 독실한 신도였으며, 어린 시절 하디의 꿈은 목사가 되는 것일 정도로 기독교를 신봉하였다. 하지만 19세기 자연과학의 발달로 인해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회의주의가 사회전반에 만연하여 당대의 기독교 신앙의 위상이 크게 추락하였다. 이와 더불어 하디가 탐독한 희랍비극과 다윈의 진화론에 큰 자극을 받아 기독교 신앙에 동요가 일게 되었다. 다윈의 『종의 기원』(*The Origin of Species*, 1859)이 발표되기 이전에는 우주와 인간 세상은 절대적인 초월자에 의해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고 운행된다는 인식이 대체적으로 통용되고 있었다. 또한 인간은 신이 창조한 가장 고귀한 존재로써 다른 동물과 질적으로 다른 존재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진화론이 가지는 종교적인 함의로 인해 기독교 신앙에 회의주의의 틈이 벌어지게 되었다. 다윈의 진화론은 종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인간의 탄생과 발전이 자연선택의 우연한 산물이라

3) 하디의 고향이 웨섹스 지방을 무대로 하기 때문인데, 웨섹스란 옛 앵글로 색슨 시대의 서부 색슨 왕국, 웨스트 색슨이라는 말을 줄여 웨섹스가 된 가상의 이름이다. 웨섹스 소설의 부류로 나뉘어지는 하디의 소설에는 『광란의 무리를 떠나서』(*Far from the Madding Crowd*), 『귀향』(*The Return of the Native*), 『숲 사람들』(*The Woodlanders*), 『캐스터브리지의 시장』(*The Mayor of Casterbridge*), 『더버빌가의 테스』(*Tess of the d'Urbervilles*), 『무명의 주드』(*Jude the Obscure*)가 있다.

4) Albert Pettigrew Elliot, *Fatalism in the Works of Thomas Hardy* (New York: Russell and Russell, 1966), p. 20.

고 보았으며, 진화에는 아무런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 신적인 설계와 목적을 부정하였던 것이다.

또한 하디는 스펜서(Herbert Spencer), 헉슬리(Thomas Henry Huxley), 밀(John Stewart Mill)과 같은 학자들의 글을 읽고 자연 과학적 태도와 관찰방법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기독교의 ‘영원한 진리’와는 무관하게 인간에게 가해지는 불행은 인간 자신의 선의와 희망에도 불구하고 무자비하게 발생하는데, 이것은 마치 우주 속에 숨겨진 내재의지의 발동처럼 여겨지는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하디는 인간이 곤경에 처했을 때 어떤 초자연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고통과 삶의 가혹함을 통해 당대 기독교 신앙에 회의를 품게 되었고, 인간의 삶에 대해 회의적이고 결정론적이며 비관주의적 경향이 그의 작품 전반에 나타나게 된다. 즉 그의 작품 속에는 기독교의 교리가 항상 주인공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일으키고 괴로워하게 만들며 평안과 위로, 용서 보다는 질책과 처벌로 나타나게 된다. 인간이 유전과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스스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떤 맹목적인 힘에 의해 운명이 결정된다는 생각 또한 그의 비관적인 사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하디의 신앙심에 대한 회의가 삶에 대한 환멸을 느끼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신을 바라보는 당대 비평가들의 결정론적이며 비관주의적 경향에도 불구하고 하디는 자신을 염세주의나 운명론자가 아니라 ‘사회개선론자’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1904년 윌리엄 아처(William Archer)와 나눈 대화에서 자신의 실제철학은 명백히 개량주의이며, 자신의 작품들은 모두 “인간이 인간에게, 또 인간이 여자에게, 하등 동물들에게 가한 잔학한 행위에 대한 하나의 긴 항변”⁵⁾이라는 언급에서 드러나게 된다. 또한 하디는 자신의 성장과정 속에서 경험하였던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도입 등에 따른 사회전반에 걸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단순히 고향의 전원적인 풍경에 향수를 느끼지도 거부하지도 않았다. 그는 이러한 변화의 양면성을 인정하였고, 부정적인 측면 못지않게 변화를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희망적인 비전에도 주목하였다. 하디는 산업화로 인한 자연과 농촌의 파괴 그리고 농촌공동체의 상실로 인한 인간적 위기를 개탄하는 이들에게 “변화는 또한 일종의 교육이기도 하다”⁶⁾라고 말하

5) Michael Millgate, *Thomas Hardy: A Biography* (Oxford: Oxford UP, 1982), p. 410.

며,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경험을 가능하게 하고 사고의 이치를 배움으로써 분별 있는 주장을 가능하게 한다고 밝힌다.

이와 더불어 하디는 인간의 이성적인 힘과 의지를 가지고 부당한 사회 제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사회개량론’ (Meliorism)⁷⁾적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 하디의 이러한 사회개량론적 입장은 당시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촌공동체의 변화와 그 속에서 나타나는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문제들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하디는 남성 작가 입에도 불구하고 여성론적 시각에서 빅토리아 시대 영국 여성들의 문제점에 주목하였다. 여성참정권 문제, 이혼법 개정문제 등에 공감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남성과 동등한 하나의 인격체로서 여성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고 여성이 겪어야 했던 부당한 성적 차별에 반감을 표한다. 하디는 당대 성이데올로기에 대해 자신이 품고 있는 관념을 자신의 문학작품 속에 투영시키고 있다. 이렇게 하디가 당대 영국의 농촌사회가 급진적인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변화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이를 자신의 웨섹스 소설 속에 사실적으로 그려 낸 이유는 우리들의 주의를 환기시켜 당면한 문제점을 인식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이 우리들의 의지에 달려 있음을 고취시키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디는 『더버빌가의 테스』라는 작품을 통해서도 토지를 보유한 중간계층에 속했던 한 여성이 농업노동자로 몰락해 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계급과 성의 문제, 사회적 인습의 비합리성, 그리고 종교적인 모순들을 자연스럽게 다루고 있다. 이 작품 속에 묘사된 반기독교적, 무신론적 사상과 작중인물 남녀의 관계가 당대의 인습과 도덕적인 기준에서 용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하디는 작품을 통해 빅토리아조 영국사회의 불합리한 측면을 비판하고 독자들에게 모순된 사회의 일면을 환기시키고자 하였다. 더불어 억압당하는 테스의 삶은 상실과 좌절을 수동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불행을 야기하는 사회 관습의 불합리한 면을 인간 개인의 의지를 통해 개선할 수 있다는 하디의 궁극적인 작가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더버빌가의 테

6) Thomas Hardy, "The Dorsetshire Labourer", *Life and Art by Thomas Hardy*, ed. Ernest Jr. Brenneck (New York: Greenberg, 1966), p. 35.

7) 이 세상에는 선이나 정의와 함께 악이나 부정도 존재한다고 인정하고, 인간의 적극적인 의지의 노력으로 이러한 악이나 부정을 점차 극복해 가면 세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주장

스』라는 작품 속에서 당대의 관습, 사회제도, 성이데올로기 등에 대한 냉철한 비판을 통해 잘 구현되고 있다. 이 작품은 부도덕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출판사들로부터 연재를 거절당하였고, 차후에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수정하여 『그래픽』(Graphic)지에 연재되기도 하는 등 불명예스러운 일도 겪어야 했다.⁸⁾ 하지만 남성의 입장에서 뛰어난 예술성을 가지고 빅토리아 시대의 여성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당대의 부당한 성이데올로기를 폭로하고자 했던 그의 문학세계는 현대의 많은 비평가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흔히 운명적인 결정론으로 설명되어지는 하디 문학 요소들을 검토해 봄으로써 근래에 새롭게 평가되어지고 있는 사회개량론자로서의 하디의 면모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빅토리아 시대의 여성관을 토대로 테스가 성이데올로기의 속박 속에서 정신적인 성장을 거듭하는 모습을 통해 그녀가 보여주는 저항의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개인의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사회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작가의 개선의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8) 이 소설의 원고가 완성된 것은 1889년 11월 경이었으나 잡지사 두 곳에서 퇴짜를 맞은 뒤 『그래픽』지에 연재되었다. 주간으로 발행되던 이 잡지는 빅토리아조 특유의 체면과 고상함을 강조하던 가정용 잡지였기 때문에 하디는 당시 성적, 종교적, 도덕적 금기에 저촉될 수 있는 체이스 숲 사건, 심야의 아기세례, 체이스버러의 장날 저녁 풍경 등 말쑥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한 뒤 원고를 보냈다.

II. 억압적인 성이데올로기

1. 사회·종교적 인습

빅토리아 시대에 기독교 문화에서는 성(sex)문제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여성을 순결한 여인과 타락한 여인으로 이분화하여 보았다. 여성이 성적으로 순결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중죄를 범한 것으로 치부되었고, 여성은 성적 욕망이 없는 희생적 존재로 여겨졌다. 테스와 같이 결혼 전에 순결을 빼앗긴 노동계층 여성들은 타락한 여인으로 간주되어 그들의 육체는 수치와 대상을 되었다. 실제로 뿌리 깊은 기독교적 유산이 잠재해 있고, 사회 인습적인 도덕률이 깊숙이 몸에 배어있던 에인젤 클레어(Angle Clare)는 피해자 입장에 있는 테스의 순결 상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단지 그녀를 ‘타락한 여인’, ‘순결하지 못한 여인’으로 규정하여 거부할 뿐이다. 테스는 자의적인 성적 욕망을 표출하거나 의도적으로 상대를 유혹하려한 적이 없다. 단지 그녀는 체이스 쉘(The Chase)에서 알렉 더버빌(Alec d'Urverville)에 의해 제압을 당하고 순결을 빼앗겼을 뿐이다.

에인젤이 여성을 바라보는 관점은 기독교적 관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작품에서 에인젤은 등장 초기에 종교적 관습과 사회적 인습의 모순을 극복한 진보적 인물로 그려진다. 귀족들의 가문의식과 세습주의를 경멸하고, 목사를 아버지로 둔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났지만, 기독교 교리를 전적으로 신봉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자신의 몸속에 흐르는 아버지의 피와 종교적인 생활이 성장 과정 내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즉 자신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기독교 교회의 고정관념이 무의식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의 영향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했으나 사랑하던 여인 테스가 ‘육체적 순결의 상실’을 고백했을 때 자신의 뿌리 깊은 내면에 존재하던 기독교적 윤리관이 작용하게 된다. ‘순결’에 대한 집착은 ‘육체’의 존재 자체를 죄악시하는 전통 기독교의 뿌리 깊은 편견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에인젤 자신의 애정관에 뿌리가 되었고 또 당대 교양계층의 정서적 발원을 이루는 기독교적

질서로부터 여전히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다.⁹⁾ 에인젤의 정신을 지배하던 윤리관은 그가 가지고 있던 이상적인 여성관에도 큰 영향을 끼쳐, 텔보테이스 목장에서 테스를 대면했을 때, 그녀를 자신이 순결한 존재로서 만들어 낸 이상화된 이미지와 동일시한다. 그래서 테스를 순결의 여신 아르테미스(Artemis)나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Demeter) 등의 이름으로 미화하여 부른다. 이것은 자신이 원하는 여성상을 기준으로 테스를 바라보고 싶었던 그의 욕구가 작용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에인젤은 테스와의 결혼 첫 날 밤, 과거 한 때 낯선 여자와 방탕한 생활을 보냈던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다. 그렇지만 반대로 테스가 알렉에 의해 순결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고백하자 측은한 마음으로 감싸주고 위로해 주기 보다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그녀를 불순한 여인으로 간주하고 거부한다. 그녀의 고백으로 그녀는 더 이상 그가 사랑하던 모습의 테스가 아닌 다른 여자로 취급 받는다. ‘막달라 마리아’ (Magdalen), ‘신선하고 순결한 자연의 딸’ (fresh and virginal daughter of Nature)로 여겼던 사랑하는 그녀는 이제 순수한 사람의 탈을 쓴 죄인이 된 것이다.

아, 테스, 이런 경우에는 용서가 해당되지 않아. 지난날의 당신은 지금의 당신과는 다른 사람이었소. 맏소사! 어떻게 괴상망측한 속임수에 용서란 말이 해당될 수 있겠어!

.....

다시 말하지만 내가 사랑한 여자는 당신이 아니요.

그러면 누구죠?

당신 모습을 한 다른 여자야.¹⁰⁾

그의 이러한 기독교적 의식은 늦은 밤, 몽유의 상태에서 그녀를 홀이불에 싸서, 수도원장의 빈 석판에 눕히는 행위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9) 김보원, 「새로 읽는 고전, 『더버빌 가의 테스』: 근대를 향한 여정」, 『영미문학연구회』 17(2004): 100.

10) Thomas Hardy, *Tess of the D'Urbervilles* (New York: Oxford UP, 2005), p. 248. 이하 이 작품에서 인용된 부분을 쪽수만 표시함.

그가 가까이 오더니 그녀 위에서 몸을 구부리고 중얼거렸다.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그는 끝없는 슬픔이 담긴 시선으로 잠시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본 다음 몸을 낮게 구부려 그녀를 자신의 팔에 안아 올렸다가 수의에 싸듯 침대 시트에 두르르 감았다. 그리고는 시신을 대하는 예의를 갖추어 그녀를 침대에서 다시 들어 올렸다가 그녀를 안고 방을 나갔다.

“가없고 가없는 나의 테스, 가장 소중한 나의 아내 테스, 너무나 사랑스러운,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성실한 사람!” (266)

“죽었구나”를 연발하며 그녀를 수의에 싸듯 이불에 감싸고 석판에도 눕히는 행위는 종교적인 장례절차를 모방하여 이제껏 자신이 사랑했던 테스를 매장하는 것이다. 즉 테스의 고백을 듣기 이전에 자신이 순결한 여성으로 여겼던 테스의 존재를 과거의 시간으로 묻어버리는 행위와 같다.

여성의 도덕적 타락이나 성적 일탈은 타락한 여인이라는 문화적 부호가 적용되면서 남성에 비해 중죄로 여겨졌다. 또한 여성은 성적 욕망이 없는 희생적 존재임이 강조되면서 처녀성에 대한 강박증이 생겼으며 그것은 여성의 자기혐오로 이어졌다.¹¹⁾ 테스가 체이스 숲에서 알렉에게 순결을 빼앗기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성경구절을 칠하고 다니며 전도하는 한 청년이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 하느니라” (THY, DAMNATION, SLUMBERETH, NOT)(91), “너희, 간음하지, 말라” (THOU, SHALT, NOT, COMMIT-)(92)라고 쓴 구절을 보면서 그녀는 양심의 가책과 부끄러움을 동시에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여성에게만 ‘순결’을 강조했던 당대 남성중심 성이데올로기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구절이 남성들에게 어떤 제약이나 도덕률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테스와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는 어떤 불순한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지 않았고, 결혼 전에 순결을 빼앗긴 ‘피해자’ 입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여인이라는 인식과 함께 그에 따른 불평등한 처우를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

원래 인간을 구원하고 죄를 용서하고 곤경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의 안식처가 되어 주어야 할 종교는 ‘교리’라는 형식적인 규율에 얽매어, 신을 절대적인 힘

11) 장정희, 『토머스 하디와 여성론 비평』 (서울 : L.I.E., 2007), p. 172.

으로 여기던 테스에게 별을 내리고 있다. 이는 테스 자신뿐만 아니라 기독교에서 불경하게 여겨졌던 사생아, 테스의 아기 소로우(Sorrow)에게 까지 이어진다. 세례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입지도 갖추지 못한 이중적인 운명 때문에 지옥의 끝으로 버려지는 아기의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테스는 자신의 방식으로 아기에게 세례를 주고 마을 목사에게 아이의 장례를 기독교 절차에 따라 치러 줄 것을 간청한다. 목사는 성직자의 입장에서는 그녀가 행한 세례의식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그녀의 세례의식은 자신이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테스가 기독교 의식에 따라 장례를 치러 줄 것을 간청하자 사회의 이복을 우려해 이는 다른 문제라며 거절한다.

“아, 그것 문제가 다르지요.” 그가 말했다.

“다른 문제라고요? 왜요?” 테스가 조금 열기를 띤 목소리로 말했다.

“단 두 사람만의 문제라면 기꺼이 하지요. 그러나 난 해서는 안 될 입장이지요.

몇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신부님, 꼭 한 번만 부탁을 들어주세요!”

“정말 안 됩니다.” (109)

아기는 아무런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생아라는 오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 이유 하나만으로 ‘누구도 원치 않았던 소로우’ (Sorrow the Undesired), ‘예고 없이 뛰어들 불청객’ (intrusive creature), ‘사회법을 존중하지 않는 얽치없는 자연의 사생아’ (bastard gift of shameless Nature who respects not the social law), ‘미아’ (waif)(108)로 취급 받아 세례와 기독교식 장례 절차를 거부당한다. 아무런 죄도 없이 죽어야만 했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한 이 아이에게 세상은 기독교라는 형식적인 틀 안에서 형벌을 가했던 것이다. 정작 인간이 힘들고 괴로울 때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 주어야 할 종교라는 공간이 그 권위를 지키기 위해 어린 양을 거부하고 있다. 빅토리아 시대 영국 기독교의 순결 의식은 인간애 없는 냉정한 종교 교리만을 고수하며 여성을 비롯한 그의 사생아에게까지 가혹한 형벌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절망의 순간에 희망

의 빛을 찾기 위해 종교에 귀의하는 연약한 인간들에게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임을 추궁하며 끝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트리고 있는 것이다.

빅토리아 시대는 여성의 가정적인 미덕과 순결성을 중시하였고 당대의 복음주의자들과 비국교도들이 강조한 청교도적 도덕관에 기인하여 절제와 금욕이 중시되었다. 급속한 산업화로 물질적인 풍요와 사회적인 번영을 누리던 영국의 부르주아 중산계급들은 당시 이러한 청교도적 규범이 요구되어지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체면을 중시하는 풍조를 낳는다. 부를 축적하여 한창 세속적 성공과 쾌락을 누리던 영국의 부르주아 중산계급들은 절제와 금욕이 강조하는 종교적 분위기 속에서 겉으로는 순결, 금욕, 근엄함을 표방하면서도 그 이면에선 세속적이고 위선적인 향락을 즐기는 남성과 귀족계층이 존재하였다. 이는 당시 신분상승을 이룬 중산계급들의 상류계급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만들어낸 계급의식, 교육을 통한 결혼과 계층상승, 신사로서의 체면중시 등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세속적 경향을 보인 대표적인 인물이 스토우크가(The Stoke)의 알렉더 버벌이다. 재산을 모은 사이먼 스토우크 노인(Simon Stoke)은 돈을 주고 자신이 영주하려는 마을에 노쇠한 명문 가문의 이름을 자신의 평범한 성과 바꾸어 살았으며 자신의 후계자도 이 이름을 영구히 쓰도록 하였다. 알렉은 자신의 집을 방문한 테스에게 손수 딸기를 따서 먹여주고 꽃을 꺾어주며, 점잖은 신사와 같은 행동을 한다. 또한 테스 집안의 생계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던 말 프린스의 죽음으로 어려운 집안 형편을 걱정하는 테스를 보며 자신의 어머니에게 일자리를 하나 부탁해 보겠노라 한다. 이런 그의 행동은 그녀에 대한 동정과 연민인 듯 보이지만 그 속에는 여성을 농락하려는 욕심이 숨어 있는 것이다. 알렉은 신사의 입장에서 그녀를 측은하게 여겨 도움을 손길을 내민 것이 아니라, 성적인 욕망과 계층적 오만함을 가진 당대의 한 남성으로서 그녀를 소유하려는 술수를 부린 것이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예쁘게 음식을 씹는 그녀의 모습을 그는 천막 안에 실타래 모양으로 자욱하게 퍼져 가는 담배 연기 사이로 바라보았다. 가슴 위에 꽃힌 장미를 순진하게 내려다보는 테스는 그 마약 같은 푸른 연기 뒤에 그녀 일생의

비극적인 재난이 서려 있음을, 그녀의 짧은 인생의 스펙트럼에서 핏빛 붉은 광선이 될 사람이 도사리고 있음을 예측하지 못했다. 테스는 지금 그녀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면을 지니고 있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알렉은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것은 테스가 실제 나이보다 더 성숙하게 보이게 하는 몸 전체의 풍만한 윤곽과 성숙하게 자란 키였다.(47-48)

테스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알렉은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다. 알렉은 그녀에게서 강렬한 성적 매력을 느끼게 되고 그녀를 소유하고자 하는 강한 욕망을 품게 된다. 테스를 배웅하는 길에 알렉은 그녀에게 키스를 하려고 얼굴을 내밀었다가 이내 생각을 바꾼 듯 놓아 주게 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그의 행위는 훗날 테스를 자신의 농장으로 불러 오려는 더 큰 야욕을 위해 잠시 동안 자신의 욕심을 숨기는 위선적인 행동에 불과하다. 게다가 체이스 숲에서의 사건 이후에 떠나는 테스를 붙잡기 위해 “이건 세상을 아는 사람으로서 말하는 거야. 당신이 현명한 여자라면 그 아름다움이 시들기 전에 세상 사람들에게 버젓이 보이려고 할 거야” (90)라고 말하며 그의 속물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당대 중산계층이 이상적으로 여겼던 여성상은 “온순하고 자아가 없는 존재, 순결하며 도덕적인 존재로서 가족들의 정신적 안내자 구실을 하는 집안의 천사”였다.¹²⁾ 이처럼 여성을 ‘집안의 천사’로 규정하여 순결한 아내와 덕 있는 어머니의 역할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이 암시하듯, 당대의 여성들은 사회가 만들어 낸 이상화된 이미지에 부응하기 위해 많은 성적 불평등을 감내해야만 했다. 1870-80년대가 되자 남녀동등권 운동이 성행했고, 의회에 부인참정권을 청원하기도 했다. 당시 투표권은 주어지지 않았으나 기혼 여성 재산법이 1882년에 효력을 발휘함으로써 여성의 지위가 한층 향상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당시 여성은 안정된 자산의 하나로 여겨져 여성을 마치 소유물로 여기는 경향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하디가 주로 활동하던 빅토리아조 말기에 성 역할에 대한 관점에 있어 전통적인 인습이 잔존해 있으나 이를 극복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따랐던 과도기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디는 테스의 불행에 대해 “만약 무인도에 홀로 있다면 자신이 당한 일을 불행하다고 생각했을까? 그렇지 않은 것이

12) Francoise Basch, *Relative Creature: Victorian Woman in Society and the Novel* (New York: Schocken, 1974), p. 113.

다..... 그녀의 불행은 사회적 관습에서 오는 것이지, 타고난 감정에서 오는 것은 아니다” (105)라고 밝히며 당대 인습이 오히려 그녀에게 불행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단 속에서는 암묵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벗어나는 행위는 논리성이나 합리성을 따지지 않고 잘못된 것으로 인식되어지는 경향이 있다. 테스의 경우도 그녀가 어떤 남성에게 순결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놓고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동정하거나 그 남성을 비난하지 않는다. 그녀가 피해자라는 입장은 염두에 두지도 않고, 사람들은 단지 그녀가 처녀로써 남성과 몸을 섞었다는 사실에만 초점을 맞춰 그녀의 가치를 평가할 뿐이다. 이처럼 인습의 기준으로만 그녀를 바라보는 행위는 그녀를 불행하게 만드는 단초가 된다. 테스의 아버지인 잭 더비필드(Jack Durbeyfield) 마저도 인습의 무비판적인 수용 때문에 딸의 아픔을 감싸주지 못하고 테스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 그는 고열로 생사를 헤매는 아기에게 세례라도 받게 해 주려고 목사를 부르러 가는 테스를 수치스럽다고 여겨 가로막는다. 처녀가 결혼도 하지 않고 몸을 버린 것도 그렇거니와 아버지 없이 애를 낳아 혼자 키운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다. 아기 소로우는 더럽혀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더욱더 환영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다. 결국 아기는 아무런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생아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회의 규범을 무시한 세상의 불청객’, ‘죄인’으로 치부되어졌다.

테스가 여성으로서 겪어야 하는 성차별과 계층문제들을 파악하기 위해 그녀가 형성하는 인간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작품 속에서 테스가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인물들은 그녀와는 다른 계층의 남성들이며, 이들과 맺어지는 관계 속에서 모순된 성이데올로기의 단면을 발견하게 된다. 평탄할 수 없는 이들과의 만남이 테스의 일생을 좌절시키는 시발점을 이루게 된다. 가난한 중간계층 노동자인 테스와 부를 통해 가문의 이름을 산 스토우크 가의 아들 알렉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부를 소유한 남성의 희생양이 되어야만 했던 사회적 모순을 비추주고 있다. 알렉은 자신의 힘과 권력을 이용하여 테스를 범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데, 테스와 마차로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테스와의 신체적 접촉을 유도하기도 하고,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지 않는 테스의 강한 자존심에 욕을 퍼붓기

도 한다. “어제서 비단결처럼 순결한, 그리고 눈처럼 하얀 이 처녀의 몸에 추잡한 무늬를 찍어야만 했을까” (82). 끝내 알렉은 남성의 강압적인 힘으로 그녀를 정복하고 만다. 알렉은 여성을 소유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강한 성욕과 함께 정복의 욕구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에인젤은 귀족들의 세습주의를 혐오하고, 종교적 권위를 부정하는 진보적인 인간으로 비춰지지만 테스를 대할 때면 마치 그의 몸속에 배어있었던 것처럼 내면에 감춰졌던 낡은 인습적인 사고로 되돌아가는 한계를 보인다. 그는 테스를 맘에 두고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도 좋을지 고민한다. “과연 농부의 아내는 응접실의 납인형 같아야 하는가? 아니면 농사일을 잘 아는 농촌 여자라야 될까?” (should a farmer’s wife be a drawing-room wax-figure, or a woman who understand farming?)(173) 에인젤이 그 해답을 얻기 위해 부모님을 찾아 갔을 때, 그는 이미 그 물음에 답을 알고 있었던 듯, ‘참다운 기독교인’ (truly Christian woman), ‘마음이 순수하고 성자 같은 여자’ (pure and saintly woman), ‘훌륭한 가문’ (good family) 출신, ‘교육 받은’ (accomplished) 여자와 같은, 부모가 제시하는 당대의 이상적인 여성상을 거부하며 진정한 사랑에 대한 자신만의 주관을 붙잡게 된다. 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념조차도 자신의 처지를 이롭게 하기 위해 자기본위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인다. 실례로, 이제껏 부인해왔던 정교(Orthodoxy)를 내세워 테스를 옹호하기도하고, 이제껏 귀족들의 세습주의를 혐오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혈통을 새삼스레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주관이 뚜렷하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다른 사람들을 희생하면서 자신을 부강하게 만든 이기적인 소수의 집단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영국 국민 중에서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말없고 이름 없는 소시민 계층에서 내려온 사람이라면 더 기뻐할지도 몰라. 그러나 나는 당신에 대한 애정 때문에 그런 사실에서 판단이 비껴갔어. 테스, 그리고 그들처럼 이기적으로 변했나 봐. (그는 그렇게 말하며 크게 웃었다) 당신을 위해 나는 당신의 가문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사회란 구제 불능일 정도로 속물적이지. 내가 의도하는 대로 당신을 교양 있는 여자로 만들고 나면 당신의 혈통에 관한 사실은 당신을 내 아내로 받아들이는데 큰 차이점을 만들 거요. 가없는 우리 어머니도 그런

이유 때문에 당신을 더욱 좋아 할 거고. 테스. 당신은 성을 더버빌로 써야 해요.
당장 오늘부터라도.(207)

이 속에서 에인젤은 완전히 남녀차별적인 사상과 귀족적인 계층의식을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독교인으로써 순결한 여인을 이상으로 여기는 그의 부모님들도 에인젤의 결혼을 알리는 편지를 받고 사랑하는 아들의 부인이 꺾 짜는 아가씨임을 못내 서운해 하는 모습을 드러낸다. 그는 이에 대한 반발심과 더불어 자신의 결정에 힘을 실어 넣기 위해 훗날 테스의 혈통을 부모님에게 알려 그녀를 자랑스럽게 소개할 명분으로 삼으려 한다.

클레어는 가족 관계에서 그들의 싸늘한 태도에 크게 마음이 상하지 않았다. 머지않아 그들을 놀라게 할 비법이 하나 있었기 때문이다. 테스를 목장에서 데리고 나와 더버빌 가문의 후손이자 귀부인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성급하고 모험스러운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그녀의 혈통을 말하지 않았다. 그녀가 그와 몇 달 동안 함께 여행을 하고 공부도 하면서 세상일에 익숙해지면 그때 그녀를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데리고 가서 유서 깊은 가문의 후손임을 알리고, 그러한 혈통으로서 조금도 손색없는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소개할 생각이었다. 이러한 계획은 사랑에 빠진 연인의 아름다운 꿈 그 이상은 아닐 수도 있었다. 테스의 혈통은 세상 누구보다도 그 자신에게 더 가치 있었기 때문이었다.(229)

이제껏 자신이 혐오하고 경멸해 왔던 가문의식과 귀족들의 세습주의를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다. 더불어 그녀가 지닌 지식을 폄하하여 교육을 통해 그녀를 가르치고 그 혈통에 걸 맞는 자질을 갖추어 내려한다. 이러한 행위는 종전에 농부의 이상적인 아내로 테스를 옹호하려 들었던 모습과는 역행하는 것으로써, 있는 그대로의 테스가 아닌 오히려 자신의 부모님들의 세속적인 기준에 맞는 자질을 갖춘 여성으로서의 테스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껏 자신의 이상으로 여겼던 테스의 순결상실에 대한 고백은 그녀를 일순간 비천한 존재로 만들어 버린다. 에인젤은 자신이 사랑했던 테스의 존재가 변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이 변한 인물로 바라보고 있다. “계층이 다르면 풍습도 다른 법이군. 당신은 사회적 관습의 상호관계에 대해 배운 것이

없는 무식한 농사꾼 여자라는 말을 하마터면 내 입에서 내뱉을 뻔 했어.” (252) 라고 말하며 자신과 테스가 속한 노동계급 사이에는 엄연한 지식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계층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자기 집안의 족보를 캐낸 신부가 입을 닫고 있었으면 더 좋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어. 자기 집안의 몰락과 자기 의지력의 부족을 연관시키지 않을 수 없어. 노쇠한 가문은 노쇠하고 허약한 의지, 노쇠하고 허약한 행동을 의미해. 도대체 당신은 왜 가문의 역사를 나한테 알려 당신을 더 경멸하는 계기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난 당신을 막 솟아난 자연의 아이로 생각했는데, 사실은 쇠락한 귀족의 철 늦은 표목이야!(252)

에인젤은 이 작품에 등장하던 초반부에는 당대의 관습과 사회적 인식의 모순을 극복한 인물로 그려진다. 그 자신도 가문의식과 귀족들의 세습주의를 경멸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지만 “내 입장은 이렇소. 나는 생각 했어 -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 사회적 위치와 재산과 세상에 대한 지식을 두루 갖춘 아내를 얻는 야심을 포기하면 핑크빛 뺨을 가진 아내를 얻는 만큼이나 확실하게 시골의 순수성을 갖춘 아내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 했어” (257-58)라는 말 속에서 그의 속물적인 경향을 발견하게 된다. 에인젤이 외쳤던 진보적인 언행은 허울 좋은 이상이었을 뿐, 그의 본연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마저도 여는 상류계층 남성들과 다름없이, 재물과 순수성을 저울질했고 후자를 선택했을 뿐이다. 에인젤은 ‘순결한 여인’으로 표상화한 테스라는 인물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지나간 과거의 한 조각을 가지고 그녀를 비도덕적인 여성으로 치부해 버리고 그녀의 본 모습을 제대로 바라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 당시 정황이나 테스의 입장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그 결과만을 가지고 그녀의 가치를 평가 절하하고 종국에 가서는 비천하고 불순한 여인으로 매도하고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머리 위에는 에인젤 클레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 그림자는 자신의 한계점이 만든 것이었다. 편견에서 해방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이십 오년 동안에 형성된 모범적이고 진보적

이고 마음씨 착한 청년도, 놀라서 어린 날의 가르침으로 움츠러들면, 아직 습관과 인습의 노예로 남아 있는 것이었다. 그녀가 밟아 온 행적보다는 성향에 의하여 그녀의 도덕적 가치가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젊은 아내가 본질적으로 똑같이 악을 증오하는 마음으로 충만해 있는 다른 여인네들만큼이나 르무엘 왕의 칭찬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어느 예언자도 그에게 말해 주지 않았으며 스스로 그런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을 만큼 자신이 예언자도 아니었다. 더구나 이런 경우에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는데, 그것은 보호막 없이 유감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노출하기 때문이다. 반면 멀리 떨어져 있어 모습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존경되는 것은 거리가 결점을 예술적 덕목으로 승화시키기 때문이다. 테스를 그녀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보면서 그는 그녀의 본질을 보지 못했으며, 흠 있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보다 훌륭할 수 있음을 잊고 있었다. (284)

에인젤 자신도 이러한 뜻밖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성보다는 감성이 앞서기 마련이며 보편적인 인습의 기준에 의거하여 상황을 판단하는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당대의 인습이 그러하듯 ‘정조를 잃은 여성’은 ‘타락한 여성’에 불과하다는 이중기준을 에인젤마저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그 자신도 그 시대의 다른 남성들과 다름 없이 고루한 인습의 노예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고 볼 수 있다.

테스와 의 잠정적인 별거 생활에 들어간 에인젤은 테스와 의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자국에서 통용되는 인습이 존재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에 자국과는 대조적인 사고방식과 인습이 존재하는 브라질(Brazil)로 이민을 하면 나중에 테스와 재결합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브라질로 떠나기 전에 방세를 치르기 위해 신혼 초 며칠 동안 테스와 머무른 웰브리지의 농가(Wellbridge farm-house)에 들렀던 에인젤은 그 곳에 찾아온 이즈 휴에트(Izz Huett)를 우연히 만나게 된다. 에인젤은 이즈에게 테스와 별거 사실을 밝히고 자신과 함께 브라질로 떠나지 않겠냐는 제안을 한다. 자신이 비록 그녀를 사랑할 수 없을지 몰라도 그동안 너무 지쳐서 마음편한 삶을 선택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사랑 없어도 다른 여성과 함께 살 수 있다는 방식의 자기 위주의 이기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도덕적인 관점에서 자신이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밝히면서까지 이즈에게 동행을 제안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는다. 테스와 의 새로운 삶을 꿈꾸는 곳으로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자신을 사랑해주는 여성과 함께 동행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비윤리적인 행위이며, 기존에 그가 주장하였던 도덕관을 부인하는 자가당착에 빠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성으로써 자신의 이러한 비도덕적인 행위는 용서가 되면서 테스의 과거는 용서할 수 없다는 사실은 에인젤도 남성중심 성이데올로기적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테스의 고통스러운 순간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개심자로 다시 태어난 알렉은 테스를 대면하자 억눌러 왔던 성적 욕망이 다시금 끓어올라 그녀에게 끝없는 구애를 퍼붓는다. 하지만 클레어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테스가 이를 거부하자 “사랑하는 남편이 믿는 건 다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건 다 아니군. 자기 쪽에서는 알아보거나 생각해 보지도 않고 말이오. 여자들이 다 그렇지. 마음이 남편 마음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 그런 거지” (341)라고 비난한다. 테스를 자신의 주체성이 없는 남성의 소유물일 뿐이며 이성이나 주관 없이 남성중심의 사고에 무분별하게 동조하며 더불어 비판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존재로 보고 있다. 또한 대다수의 여성들이 남편의 노예를 자처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일반화하며 책잡고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구애에 응하지 않은 테스에게 알렉은 “부인, 기억해 두시오. 나는 한 때 당신의 주인이었다는 점을! 나는 다시 당신의 주인이 되리라는 것을 기억해 뒀요. 당신이 어느 남자의 아내 라면 바로 내가 그 사람이오!” (Remember, my lady, I was your master once; I will be your master again. If you are man's wife you are mine)(352)라며 테스의 신체를 범한 행위가 마치 그녀 인생 전부를 지배할 수 있는 정복자의 권리를 부여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여성을 소유의 대상으로 여겼던 당대의 비논리적인 성 의식을 발견하게 되는 대목이다.

『더버빌가의 테스』 내에는 여성을 바라보는 두 가지 태도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알렉과 에인젤의 경우로, 전자는 여성을 일차적으로 성욕의 대상으로 보는 태도를 취하며 후자는 이상화를 통해 그녀의 성적 본성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인다라고 할 수 있다.¹³⁾ 어빙 하우(Irving Howe)의 경우 알렉이 육체적으로 테

13) Dale Kramer, *Critical Approaches to the Fiction of Thomas Hardy* (London: Macmillan, 1979), p. 147.

스를 파괴하였고 에인젤은 정신적으로 테스를 파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¹⁴⁾ 이 두 인물의 대립적인 성향을 통해 여성에게만 신체적 순결을 요구하는 중산계층 남성의 이기주의와 오히려 여서의 순결 파괴하는 남성들의 속물적인 태도 사이의 대립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이와 같이 남성 위주의 관점에서만 이롭게 만들어 진 편협적인 사고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 남성의 성욕만이 인정되는 사회 속에서 여성은 일방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순결을 지켜내야만 하는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다. 이러한 남성중심 성이데올로기의 지배 아래에서 여성은 언제까지나 피해자일 수밖에 없다.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여성교육에 관한 문제, 결혼과 이혼문제, 빅토리아조 종교적 성도덕의 이중적 기준 등의 문제는 하디의 주의를 끌었던 문학의 소재거리들로, 테스가 불행을 겪어야 했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남성중심 성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테스는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순결과 정조의 미덕은 여성에게만 강요되었기 때문에 지성을 갖추지 못한 그녀가 드러내는 성적 매력은 오히려 남성의 성욕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 여성에게만 순결을 요구하는 이중적인 성도덕 기준 속에서 테스는 자신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대우를 감내해야만 했다. 끝없는 삶의 풍파를 겪어도 그 어느 누구하나 테스를 가련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다. 마을 사람들과 가족들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그녀의 죄를 묻는다. 그녀의 외로운 삶의 투쟁은 그녀의 끝없는 희생을 요구하고 구석에 몰린 그녀는 살인이라는 극단에 이르게 된다. 사회법이나 기독교 교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에만 치우쳐, 진정한 인간 내면의 본질과 가치를 파악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2. 자본주의 억압

하디 소설의 대부분이 도시 지방을 중심으로 한 웨섹스라는 가상의 공간을 무대로 그려지는데, 영국 남서부의 농촌지역은 당시 산업화가 농촌 사회에 끼친 영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로 인해 농촌 사회는 심각한 변화를 겪게 되고 전

14) Irving Howe, *Thomas Hardy* (New York: Barners & Novel. 1971), pp. 126-127.

통적인 질서의 붕괴를 맞게 되었다. 1846년 곡물법 폐지는 농촌 경제의 궁핍을 가져왔고 농촌 지역의 많은 소규모 자영농민들과 장인계층은 도시로의 이주를 강요당하거나 농촌사회에서 농업 노동자 또는 떠돌이 노동자로 전락하였다. 테스는 마을에서 이름난 게으름뱅이였던 종신차지농 아버지와 비현실적인 어머니 밑에서 다섯 명의 형제들과 더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역경 속에서 자라났다. 가정의 가난은 그녀를 비극으로 몰고 가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데, 종국에 가서는 테스가 알렉의 정부를 자처해야만 했던 원인이 가족의 생계유지에 있었다는 사실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테스의 아버지 더버필드는 자신이 더버빌이라는 가문의 직계 자손이라는 소식이 알려진다면 지체가 높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들 거라는 허황된 생각만을 한다. 천성이 게으르고 나태한 그는 어려운 가정 경제의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그로 인해 집안의 살림은 더욱 궁핍해져 간다. 또한 그녀의 어머니는 테스가 트랜트리지 마을에 자신들과 동일한 가문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돈 많은 부인의 아들과 결혼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허상에 사로잡혀 있다. 더불어 테스의 결혼을 통해 신분상승을 꾀하고 집안의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테스는 어릴 적부터 이웃 농가에 가서 일을 거들곤 하였다. 이로 인해 테스는 자신의 실수로 집안의 중요한 생계수단이었던 말 ‘프린스’를 잃게 되었을 때,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도움을 구하기 위해 트랜트리지(Trantridge)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프린스의 죽음은 가계의 궁핍을 의미하며, 이는 테스가 더버빌가로 구걸을 하기 위해 떠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⁵⁾

결국 자신과 동일한 가문의 이름을 사서 귀족행세를 하고 있는 스토우크가에 도움을 청하러 가야만 했고 운명의 장난처럼 이것이 테스가 체이스(Chase) 숲에서 알렉에게 순결을 빼앗기는 비극으로 이어지게 된다. 테스는 자신에게 제한되었던 교육의 기회로 인해 이런 불행을 겪어야 했다고 한탄한다.

오, 엄마! 엄마!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녀 달 전 이 집을 나섰을 때 난 어린

15) Tony Tanner, "Colour and Movement in Hardy's *Tess of the d'Urbervilles*," in *The Victorian Novel: Modern Essays in Criticism*, ed. Ian Watt (Oxford: Oxford UP, 1978), p 140.

아이였어요. 남자들이 위협하다고 왜 말해 주지 않았어요? 왜 경고해 주지 않았어요? 지체 높은 집 숙녀들은 이런 속임수를 알려 주는 소설을 읽기 때문에 자신들을 어떻게 지킬지 알아요. 그러나 나는 그런 식으로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엄마가 날 도와주지도 않았고요.(94)

테스가 받은 교육은 초등학교 6년간의 의무교육 과정이 전부이다. 집안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교사’가 되고자 했던 자신의 꿈도 포기해야 했다. 하디도 “그녀가 더버빌 가로 가기 전에 자신과 세상 전반에 알려진 여러 가지 금언의 내용과 구절에 따라 살았다라면 그녀는 더버빌로부터 기만당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111)라고 언급함으로써 당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충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던, 중산노동계층 여성의 교육 수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그녀의 지성이 뒷받침 되지 못한 성적인 매력은 그녀를 인격적인 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성욕의 대상으로만 여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트랜트리지 마을에서 알렉에게 못된 짓을 당한 테스는 그 길로 말로트로 돌아온 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은둔 생활을 하던 어느 8월의 새벽, 추수로 분주한 들판위에 일꾼들 틈에 끼어 있다. 밀밭에 추수하는 기계가 돌기 시작하고 그에 따라 밀밭의 범위가 점점 좁아져 감에 따라 토끼, 뱀, 들쥐, 생쥐와 같은 들짐승들이 숨을 수 있는 공간도 점점 좁아져 간다. 더욱이 추수가 끝나고 나서는 추수꾼들에 의해 맞아 죽게 될 운명이다. 테스의 처지는 지금 추수 현장의 밀밭에서 추수기계와 추수꾼들에게 쫓기고 죽음을 맞는 들짐승들에 비유된다.

들판을 둘러 있는 그루터기의 좁은 길이 말과 기계가 한 바퀴 돌 때마다 넓어졌고, 아침 시간이 지나면서 아직 자르지 않은 밀밭의 면적이 점점 줄어들었다. 집토끼, 산토끼, 뱀, 쥐, 생쥐들이 피난을 일시적인 것으로 여기며 나중에 그들을 기다리는 운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요새로 후퇴하듯 밀밭 안으로 일단 숨어 들어갔다. 은신처가 점점 무섭게 줄어들다가 친구와 적이 다 함께 뒤엉키고, 겨우 마지막 몇 미터 넓이에 서 있던 밀이 정확한 수확기의 이빨 아래에서 모두 쓸어지면, 추수하는 사람들이 던지는 막대기와 돌이 맞아 예외 없이 모두 죽음을 맞을 운명을 모르고 있었다.(100)

테스가 에인젤과 짧은 결혼 생활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 전전하다가 결국은 궁여지책으로 선택한 곳이 ‘플린트콧 애쉬’라는 농장이었다. 이 농장은 에인젤과 함께 일했던 텔보데이스 농장과는 다르다. 텔보데이스 농장은 ‘지주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흔히 영국 농촌에서 느끼는 관습적인 하찮은 구속감마저 찾아볼 수 없는’ 장소이지만 플린트콧 애쉬는 부재지주 농장으로, 자본주의 발달로 생겨난 약탈지주에 의해 경영되는 농장이다. 이곳에서 테스의 혹독한 노동 현장을 통해 기계화된 농업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을 관찰하게 된다. 테스가 플린트콧 애쉬 농장에서 밀을 타작하는 날, 밀을 탈곡하는 기계는 “여성들이 섬겨야 할 붉은 폭군” (the red tyrant that the women had come to serve)(345)으로 상징되고, 그 가운데 탈곡기 위에서 남성이 하는 거친 일에 맡겨진 테스는 이러한 폭군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

숨 가쁜 고통이 날가리 주변을 지나갔다. 밀단을 탈곡기에 넣은 남자의 얼굴이 지쳐 있었다. 테스는 빨개진 그의 목덜미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먼지와 겨를 보았다. 그녀는 계속 자기 자리를 지켰다. 그녀의 얼굴은 상기되고 땀에 젖은 채 밀 먼지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으며, 그녀가 쓰고 있는 모자도 내려앉은 먼지 때문에 갈색으로 변해 있었다. 여자들 중에서 탈곡기 위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은 그녀뿐이었다. 그녀는 기계의 회전이 온몸을 심하게 흔드는 것을 느꼈다. 날가리의 높이가 낮아지면서 그녀는 이즈와 마리안과 멀어졌고 아침에 하던 것처럼 작업 위치를 바꿀 수도 없었다. 끊임없는 진동 때문에 몸의 섬유질 하나하나가 흔들려 생각이 마비된 채 팔이 의식과 무관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조차도 느끼지 못했으며, 머리칼이 흘러내리고 있다고 아래쪽에서 이즈 휴에트가 소리를 질렀으나 그 소리도 듣지 못했다.(353-4)

이 폭군의 절대적인 힘 앞에서 테스의 고된 노동은 그녀를 의식과 관계없이 몸을 움직이게 되는 마비상태로 만든다. 테스는 기계가 작동되기 시작하면 일에 착수하여야 했고, 기계가 멈추기 전까지 손을 놓을 수 없으며 기계의 움직임에 끊임없이 자신을 맞춰가야 한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 낸 탈곡기가 오히려 인간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있다. 또한 기계타작을 하는 일을 여자한테 맡기는 것이 불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유에서 주인은 테스에게 그 일을 시켰

던 것이다.

19세기 후반 전체 노동력의 30 퍼센트가 부녀자였으며 부녀자들의 임금은 보통 성인 남자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테스는 이곳에서 ‘값싼 노동력’에 불과한 것이었으며¹⁶⁾, 하나의 인격체로 간주되지 못하는 인간 소외 내지는 몰개성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이곳에서는 하루 동안 일한 분량에 비례하여 돈을 주는 현금 거래의 관계가 형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혹독한 날씨 속에서도 일이고됨의 정도에 상관없이 그 고통을 참고 견뎌야 하는 압박 속에서 임금의 지배를 받는 노예가 된다. 19세기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의 진입은 가정이 기본적인 생산단위였던 봉건사회에서 부각되었던 여성의 지위와 역할의 중요성을 약화시켰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과 노동의 분리는 남성의 지위를 끌어 올렸으나 상대적으로 여성의 지위를 하락시켰다. 기존 여성의 일자리는 남성들이 차지하게 되었고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남성들에 비해 저임금을 받으면서도 남성들과 같이 신체적인 강인함을 요하는 힘겨운 노동을 감수해야만 했다.

음력 성모 마리아의 날 전날 밤이 되면 주의 봉헌축일(Candlemas)에 체결한 일 년간의 고용 계약이 끝나고 노동자들이 다른 농장으로 옮겨 다니는 현상이 나타난다. 테스의 어머니가 어렸을 때에는 평생토록 한 농장에서 생계를 이어갔지만 지금 테스가 살고 있는 시기에는 산업혁명의 여파로 농촌사회의 계급구조의 변혁이 일어나 지주에게 직접 고용되지 않은 노동자들은 쫓겨나야만 했고 그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향해야 했다. 하디의 표현을 빌리자면 “통계학자에 의해서 ‘농촌 인구의 도시 집중 경향’ 이라고 규정된 그 과정은 기계력을 이용하여 물줄기를 역지로 산꼭대기에 끌어 올리는 경향과 같은 것” (372-373)이었다. 이러한 변혁의 바람을 테스도 피해갈 수는 없는 것이었다. 종신 차지농이었던 아버지의 죽음은 테스의 가정에 커다란 위기로 작용한다.

예전의 농촌 같으면, 주로 소규모 차지농, 목수, 양치기, 구두 제조공, 도붓상, 대장장이와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소규모 생산양식을 유지하면서 농촌 공동체의 뼈대 구실 역할을 하고, 가족 단위로 할 수 있는 양과 소의 방목, 맥주나 사과주의 제조, 버터나 치즈 만들기, 딸감 모으기, 돼지치기 등에 종사하는 이들도 많아 이들 역시 농촌의 전통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16) 고세현, 『영미문학의 길잡이 I』(서울 : 창작과비평사, 2002), p. 392.

이러한 소규모 생산 양식은 수차례에 걸친 농지의 목초지화(enclosure)로 인해 소멸위기에 처하고 산업혁명 이전의 ‘농민층(peasantry)’은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으며 농촌지역의 중심이었던 소규모 땅을 경작하던 차지농과 장인계층도 점차 사라져갔다. 빈민 구제법의 실시는 노동자의 임금을 더 하락시켰고 이들은 결국 도시로 이주하여 떠돌이 생활을 해야만 했다.¹⁷⁾ 결과적으로 종신차지농인 더버필드의 죽음은 삼대로 한정되어 있던 토지차용 계약이 말소됨을 의미했다. 따라서 테스는 농업노동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을 데리고 마을을 떠나 이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가장이 된 셈이었다. 테스가 젊어지기에는 너무 큰 짐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알렉의 정부가 되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벼랑 끝에 몰린 테스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었다. 결국 그 동안 알렉의 끈질긴 구애 속에서도 자신의 주체성을 지키기 위해, 힘든 노동의 현장에서도 절대로 굽히지 않았던 그녀의 자존심은 가족을 위해서 희생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디 소설이 문명이전의 벽지 시골을 배경으로 한다는 것은 산업화되는 도시 사회에 대한 불신과 절망의 표시로 읽혀진다고 할 수 있다.¹⁸⁾ 하디는 특히 이 작품에서 말로트 마을과 플린트콤 에쉬를 중심으로 19세기 영국 남부 농촌 사회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통해 테스가 겪어야 했던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여성으로서 겪어야 했던 부당한 노동의 현장과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모순을 보여준다. 가계의 궁핍으로 꿈을 저버려야 했고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힘든 노동에 종사해야 했으며, 종신차지농이었던 아버지의 죽음으로 보금자리를 빼앗기고 쫓겨나듯 도시로 이주해야 했다. 농촌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소수에게 주어질 경제적 궁핍은 오히려 한 인간으로서 여성이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하는 전장이 되고 있다.

3. 억제된 자아

17) 장정희, 『문학의 이해와 감상 토마스 하디 삶과 문학세계』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1995), pp. 32-33.

18) 양영수, 『산업사회와 영국소설』 (서울: 도서출판 동인, 2007), p. 44.

하디 문학의 창작원리로 말하면, 주인공들의 행동은 ‘인간의지’가 ‘유전적인 성격 특징’과 현재의 ‘환경요인’을 만날 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¹⁹⁾ 즉, 그녀의 행동을 일으키는 동기는 비단 그녀의 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그녀의 성격적인 측면도 크게 작용한다. 특히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무덤덤하고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테스의 수동적인 태도에서 그녀의 불행이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새벽에 아버지를 대신하여 별통을 운반하는 테스와 동생 에이브러햄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원인을 자신이 운명으로 선택받은 세상, 즉 자신이 태어나서 살고 있는 세상에 귀결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테스는 집 앞에 있는 사과나무에 달려 있는 사과를 세계와 유사하다고 보고 있으며 그 중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계를 ‘벌레 먹은 사과’ (blighted one)로 비유하고 있다.

별들도 세계가 있다고 그랬지, 누나?

잘은 모르지만, 아마 그럴 거야. 가끔 별은 우리 집 사과나무에 달려 있는 사과와 비슷하게 보일 때가 있지. 모두가 싱싱하고 거뭇이 없어 보여. 가끔 벌레 먹은 것도 있긴 하지만.

우리들은 어느 쪽에 살고 있지? 싱싱한 거야, 벌레 먹은 거야?

벌레 먹은 쪽이지.

저렇게 싱싱한 별이 많은데, 그런 걸 고르지 못한 건 매우 운이 나쁜 거야!

그래.(37)

테스의 남동생 에이브러햄은 만약 자신들이 ‘싱싱한 것’ (splendid one)으로 골랐다면 누나인 테스가 처음부터 부잣집 아가씨라서 신사한테 시집을 가지 않아도 될 것이라 말하고, 테스 자신도 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나쁘지 않았을 것이고 어머니의 끝없는 가사노동도 없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녀의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자신들의 친척이라고 믿었던 스토우크 가문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 곳에서 알렉과의 불행한 만남을 이어가게 됐던 것이다. 결국은 이 만남의 시초가 마지막까지 테스를 죽음이라는 불행에 이르게 했다고 볼 수 있다. “자신들이 슬픈

19) 양영수, p. 146.

일을 겪게 되는 이유가 바로 자신들이 별레 먹은 별에서 살고 있기 때문” ('Tis because we be on a blighted star, and not a sound one, isn't it, Tess?)(39)이라고 에이브러햄은 말한다. 그러므로 테스의 인생은 그녀의 성격적 결함으로 인해 그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초자연적인 힘과 비극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는 촉매의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전과 환경, 그리고 성격은 상호 작용하여 한 개인의 운명을 결정지으며 성격은 홀로 운명을 결정짓지 않는다 할 수 있다. 20)

고향으로 돌아가던 테스는 길가에 세워진 널판 위에 쓰인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이라는 구절과 “너희들,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는 구절이 마치 그녀의 가슴에 파고들어 책망하는 듯한 무서움을 느끼고 얼굴이 빨개진다. 비록 자신의 과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집으로 돌아온 뒤 테스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녀가 머릿속에서 만든 인물들이 인습에 근거해 그녀가 적대적인 망령과 목소리에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테스의 유감스럽고 잘못된 상상의 창조물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녀가 이유 없이 두려워하는 도둑이라는 도깨비 떼 이상은 아니었다. 현실 세계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것은 이런 창조물이었으며 결코 테스 자신은 아니었다. 울타리에서 잠을 자는 새들 곁은 견고, 달빛이 교교하게 비친 토끼굴 위에서 뛰노는 토끼 떼를 지켜보고, 꿩들이 휘어지게 내려앉은 나뭇가지 아래 서서, 그녀는 자신을 순수의 세계에 침입한 원죄의 표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테스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곳에서 계속 차이를 만들어 붙이고 있었다. 자신을 적대적 입장에 두고 있었으나 실제로 그녀는 조화 속에 있었다. 그녀는 사람들이 받아들인 사회법을 어긴 것이었으나, 그것은 자신이 변칙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환경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법이었다.(97-98)

자신의 잘못에 의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은 당대 인습에 함몰되어 이를 수용해 버렸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당대 사회인습에 따르면 자신은 타락한 여인이며 가슴에 ‘주홍글씨’ 를 새긴 것처럼 주변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어 마땅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20) Jeanette King, *Tragedy in the Victorian Novel* (London: Cambridge UP, 1978), p. 26.

없다.

텔레비전 낚시장에서 테스가 만난 에인젤은 그녀에게 지성의 존재로 여겨졌고 그의 풍부한 지식을 보면서 자신과 그 사이에 큰 인격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한없이 기가 죽어서 자신의 지식을 에인젤의 지식에 비하면 ‘시바의 여왕’ 같이라며 스스로를 평가절하 한다. 이에 에인젤은 그녀가 원하면 역사와 문학 무엇이든 가르쳐 주겠다고 하지만 역사를 배우는 것은 단지 자신의 불행한 운명을 알아가는 슬픈 행위일 뿐이라면서 이를 거부한다.

내가 긴 역사의 대열에 선 사람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배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옛날 책 속 어디에 나와 같은 사람 누군가가 벌써 들어 있고, 내가 그 책 속에 있는 한 사람의 역할을 할 거라는 점을 안다는 것, 그것은 날 슬프게 만들어요. 그게 이유예요. 최선의 방법은 자신의 천성과 자신의 과거사가 수천 수만 명의 그것과 같다는 사실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자신의 인생과 행동이 수천 수만 명의 그것과 같을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142)

테스는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삶의 의지나 노력을 통한 운명의 개척을 피하지 않는다. 운명의 불변이라는 소극적인 인간의 자기합리화를 그대로 수용하려 할 뿐, 그 테두리 안에서부터 벗어나려는 의지는 보기 힘들다. 미신이나 설화에 의존하는 어머니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소극적인 인간으로 퇴보하고 있다.

더욱이 테스 자신이 경멸했던 가문의 이름이라는 허상을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 에인젤의 존경을 유도하는데 이용하려 하는 것은 대단히 모순적이다.

그가 자기를 얼마나 어리석게 생각할 것인가! 그에게서 좋은 평을 듣고 싶은 마음에서, 최근 결과가 너무 불쾌해 잊으려고 애썼던 일, 즉 기사 계급의 더버빌 가문이 그녀 집안이라는 사실을 알릴까도 생각해 보았다. 실속 없는 명예이고, 알게 되면서 오히려 여러 면에서 재난만 가져왔지만, 클레어 씨는 신사 계급 출신이며 역사학도여서, 킹스비어 교회 안의 퍼백 대리석 석상과 설화 석고상의 인물들이 계보상 대표적인 자신의 선조들이며 트랜트리지에 사는 더버빌과 달리 자신이 돈과 야심으로 만들어진 가짜 더버빌이 아니라 뺏속까지 진짜 더버빌이

라는 사실을 알면, ‘백작’ 과 ‘백작부인’ 을 가지고 어린애처럼 행동한 것을 잊고 자기를 존경할 거라고 생각했다.(142)

알렉에게 몹쓸 짓을 당하고, 그의 아이를 임신하고, 자신의 아이를 잃고, 죄책감에 시달린다. 결국 자신을 둘러싼 무성한 소문들을 뒤로 하고 과거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곳 텔보데이스까지 찾아온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불행을 일으킨 원인인, ‘허울 좋은 버더빌 가문’ 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자신이 사랑하는 남성에게 알리고 자신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데 이용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가문에 대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입장을 고수하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그것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주의자’ 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농장에서 함께 일하는 이즈(Izz Huett), 레티(Retty Priddle), 마리안(Marian)이 에인젤을 사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테스는 그녀들에 대한 얘기를 에인젤에게 좋게 이야기 해 줌으로써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 아름다움을 숨기겠다고 결심한다. 그래서 테스는 에인젤에게 세 여인의 아름다움에 대해 칭찬을 늘어놓는다. 그러나 “아름다움이란 안타깝게도 영원히 있는 게 아니 예요!” (Though, poor dears—prettiness won’t last long)(156)라는 말을 덧붙인다. 이는 앞서 트랜트리지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테스에게 알렉이 건넨 말, “당신이 현명한 여자라면 그 아름다움이 시들기 전에 세상 사람들에게 버젓이 보이려고 할 거야” (90)라고 한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남성 중심적인 사상을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겉으로 보여 지는 아름다움만을 강조하여 내면의 아름다움, 본질의 가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양심과 도덕에 비추어 봤을 때, 에인젤의 청혼을 받아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점을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자신의 양심을 지키리라 다짐을 하지만 계속되는 에인젤의 청혼에 마음 한 구석에서는 결국은 자신이 그의 청혼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자신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모습도 찾아 볼 수 있다. 자신이 에인젤의 청혼을 받아들이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이성의 가르침을 의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본능과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자신의 아름다움을 희생시키기 위

해 에인젤에게 자신을 제외한 세 처녀, 이즈, 레티, 마리안 이야 말로 훌륭한 농부의 아내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들 중 그 어스런 여성과 결혼하라는 말도 할 수 없었고, 자신이 이 세 여인들보다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 부족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른 여성에게 에인젤을 뺏기는 것은 용납될 수 없었다.

‘내가 포기해야지. 좋다고 말할 거야. 그와 결혼해야지. 어쩔 수가 없어!’ 그날 밤 다른 처녀 하나가 자면서 한숨을 지으며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은 테스는 달아오른 얼굴을 베개에 묻으면서 질투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나 이외 누구도 그 사람을 소유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어.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의 아내가 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죄를 짓는 것이며, 그 사람은 모든 사실을 알면 죽을지도 몰라! 아 답답한 이 가슴! 오, 오, 오!’ (196)

게다가 세 아가씨가 테스 자신보다는 에인젤에게 더 좋은 부인이 될 수 있고 자신 못지않게 그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했을 때 에인젤이 안타까운 듯 외치는 음성을 듣고 테스는 흐뭇해하기 까지 한다. 이성적으로 에인젤과의 결혼이 불가능한 이유를 사실대로 고백하지 않고 자신보다는 다른 아가씨들의 가치를 칭찬하며 겸손한척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테스의 행동은 가식이 묻어 있는 것으로 속마음은 질투와 경쟁 심리로 채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

테스는 자신의 불행한 결혼의 결말을 피하기 위해서 에인젤에게 자신의 과거를 고백할 용기를 낸다. 에인젤의 구애를 받은 테스는 자신이 에인젤과 결혼을 한다면 그에게 괴로움을 안겨 주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고 그의 마음을 단념시키려 한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말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려 한다. 그녀의 욕망이 그녀의 도덕적 양심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것이다. 결국 테스는 자신의 과거를 밝힌다면 지금 순간의 욕망을 위한 목적을 망쳐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고백할 용기를 내지 못한 채 그의 청혼을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리고 과거의 일을 비밀로 덮어 둘 것을 종용하는 어머니의 편지에 힘입어 ‘자신이 흠모하는 남자의 행복을 위해서 침묵이 최선책일 것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결혼 후에 자신의 과거를 고

백하면 에인젤 성격으로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던 테스였다.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테스는 그의 얼굴을 마주보고 고백할 용기가 나지 않아 편지를 써서 그의 방 문 밑으로 밀어 넣었다. 훗날 자신의 편지가 양탄자 밑으로 들어가서 에인젤이 그 편지를 읽지 못함을 알아 차렸을 때, 그녀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서 그 편지를 찢어 버리고 만다. 에인젤이 “오! 테스, 좀 더 일찍 말했더라면 용서했을 것을!” (O Tess-if you had only told me sooner I would have forgiven you!)(286)이라는 탄식의 울부짖음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녀가 용기를 내어 일찍 고백을 했다거나 그가 편지를 읽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즉시 그에게 고백을 했더라면 그 며칠 안 되는 결혼 생활의 불행한 결말을 피할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 결론적으로 그녀의 결단력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불행을 자초했다고도 볼 수 있다.

에인젤의 청혼을 승낙하고 결혼 날짜를 정한 이후, 자존심이 강하고 주체적인 의식을 갖추어 가던 테스는 오히려 에인젤에게 순종적인 여성으로 퇴보해 간다. 테스에게 에인젤은 이제 하나의 신앙이며 신과 같은 거룩한 존재가 되어 버렸다.

이제 테스는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시간의 날개에 실려 날아가고 있었다. 결혼은 이미 약속된 것이고 날짜도 정해졌다. 영리한 머리를 타고난 테스는 들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동료들보다 자연현상을 좀 더 폭넓게 다루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운명론적 신념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따라서 그녀는 그런 심성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듯 사랑하는 사람이 시키는 것은 모두 수긍했다.(221)

더불어 그녀의 태도는 에인젤의 태도와 습관, 말투, 그의 기호까지 그대로 닮고 있었다. 그리고 테스는 이제 에인젤의 말에 순순히 복종하기 까지 한다. 이제껏 자신의 주체성을 찾아가던 테스는 사라지고 당대의 인습과 가부장제에 물들어 버린 평범한 여성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결혼식을 마친 테스는 자신을 독립적인 존재가 아닌 남편의 부속물에 지나지 않음을 인정해 버린다. 테스는 점차 소극적인 여성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같은 대야에 물을 붓고 테스와 함께 손을 씻는 순간 에인젤이 그녀의 손을 만지며 “어느 게 내 손가락이고 어느 게 당신 손가락

인지 모르겠어” (Which are my fingers and which are yours?)라고 말하자, 테스는 “전부 당신 손가락 이에요” (They are all yours)(236)라고 하며 모순된 사회적 인식이 그러하듯, 결혼 후 여성은 남성의 소유가 된다는 남성중심 가부장제 의식을 그녀도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결혼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테스는 에인젤이 사랑하는 사람이 알렉에게 겁탈을 당하기 이전의 자신일 것이라 생각한다. 그녀는 그가 사랑하는 여자가 진정한 자신이 아닌 자신의 허물을 감싸고 있는 여자이며 지난날의 자신의 모습일지도 모를 여자라고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테스도 당대의 인습에 젖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타락한 여인’이며 ‘본질이 변한’ 인간이라고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결혼 첫날 밤, 테스가 에인젤에게 과거 체이스 숲에서 알렉에서 목쓸 짓을 당했던 과거를 고백하고 그의 용서를 빌었지만 끝내 용서하지 않고 자신을 경멸하는 에인젤에게 “당신이 쓰러져 죽으라고 한데도 난 불쌍한 노예처럼 복종하겠어요” (I will obey you, like your wretched slave, even if it is to lie down and die.)(249)라며 그가 시키는 일이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식의 무조건적인 복종을 맹세한다. 이는 당대의 성에 대한 이중적인 기준과 성적 억압에 함몰되어 무비판적으로 그것을 그대로 수용해 버렸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자살을 하는 것조차 자신에게는 과분하며 자신을 처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도 남편인 에인젤의 몫이라 여기고 있다.

하지만 에인젤. 나는 전적으로 당신을 생각해서 그런 거였어요. 이혼 때문에 자기가 겪어야 할 나쁜 소문에서 자기를 해방시키기 위해서였어요. 날 위해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짓이었어요. 그러나 결국 내 손으로 그런 짓을 하는 것은 나에게서 과분한 일이었어요. 선수를 쳐야 할 사람은 당신이었어요. 피해를 입은 내 남편이 먼저 시작했어야 했다고요. 그럴 수만 있다면, 당신이 직접 이혼 절차를 밟을 수만 있다면, 난 자기를 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달리 길이 없으니까요. 난 너무나 가치 없는 여자라는 생각뿐이에요. 너무나 자기에겐 방해만 되고 있잖아요.(259)

자신을 단순한 대상이 아닌 하나의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설득시키고 존중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포기하고 남성의 소유물로써 그에게 맞추어 변화시키려 한다. 이는 주체성을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이며 자신의 존엄과 인권마저도 남성의 권위 앞에 무의미한 것으로 여겨 자신의 인권을 포기하는 행위이다.

남편과의 별거 이후 새 일자리를 찾아 플랜트콤 애쉬(Flintcomb-Ash)농장으로 떠나던 테스는 자신의 아름다움이 해가 된다고 생각하자 자신의 외모를 감추기 위해 손수건으로 얼굴을 감싸고 모자를 쓰고, 눈썹을 가위로 사정없이 잘라버린다. 길에서 만난 남성에게서 “무슨 여자가 허수아비처럼 하고 다니나!” (What a mommet of a maid)(299)라는 말을 듣게 되자, 테스는 슬픔에 눈물을 흘리지만 이내 자신을 바라봐줄 남편이 없으니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한다. 그녀의 이런 행위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바라봐주고 돌보아 주는 남성이 존재할 때만 빛을 발하는 것으로 여기는 듯하다. 자신의 외모를 가꾸고 다듬는 것이 스스로 아끼고 보살피는 일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라는 존재를 드러내는 수단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스에게는 자신이라는 존재가 홀로 따로 존재할 수 없으며 남편이 있을 때에만 그 존재의 가치가 분명해지고 명확해지는 것이다.

상관없어. 천만에! 난 신경 쓰지 않아! 이제부터 난 흥한 모습으로 다닐거야. 에인젤이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날 돌봐줄 사람도 없으니 말이야. 내 남편이었던 사람은 떠나 버렸고 이제 날 사랑하지도 않을 거야. 그러나 난 그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고 다른 남자는 모두 미워해. 차라리 그들이 날 경멸하는 게 나야!(299)

자신의 고유한 사고를 갖지 못하고 에인젤의 생각을 그대로 수용하여 자신의 의지 속으로 채워 넣은 테스는 이제 정체성을 잃어버린 듯하다. 테스는 알렉과 신앙에 대한 믿음을 논하면서 과거에 자신이 에인젤에게서 듣고 배운, 그러나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철학적인 말들을 늘어놓는다. 이해하지도 못하는 말들을 무비판적으로 자신의 의식 속에 심어 넣은 이유는 단 하나, 에인젤이 믿고 있는 걸 그대로 믿고 싶었고 그와 다른 정신을 갖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믿는 것을 나도 믿고 싶었으니까요. 그 사람은 그러는 걸 바라지 않았지만요. 난 그 사람을 달래서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 중 몇 가지를 말해 달라고 했어요. 그걸 내가 이해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이 옳다는 건 알아요.

.....

그래서 난 정신적 운명을 그의 운명 속으로 던져 넣었어요. 난 내 정신세계가 그 사람의 세계와 달라지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이라면 나에게도 좋은 거니까요.(341-342)

비록 알렉이 ‘남편이 믿는 것은 따라서 믿는, 즉 자신의 입장에서는 따지지도, 의문도 품지 않는 여자들의 태도! 자신의 마음이 남편의 노예가 된 것’ 같다는 거친 말 속에 당대 여성에 대해 남성 중심적인 선입견이 표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테스의 남성예속적인 태도에 일침을 가하는 표현으로 보인다.

알렉이 과거에 순결을 빼앗은 연유로 인해 테스를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고 그녀에게 그의 아내가 되어 달라 청을 할 때 테스는 자신의 남편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말한다. 비록 그가 자신의 남편이 아니라고 그녀는 극구 부정해 왔지만, 육체적으로는 오직 그 남자만이 자기의 남편이라는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점점 무겁게 압박한다. 그녀의 괴로움의 원인은 그녀도 겉으로는 당대 사회의 고정관념을 거부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그녀의 의식 속에서는 이를 완전히 밀쳐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테스의 고된 인생 역정에 그녀 자신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녀의 내면의식은 아직까지 완전하게 자신의 믿음과 의지로 채워 지지 못하고 있고 자신의 주체의식을 가지고 자기 주도적 결정을 내리는데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스스로를 대변하지 못하고 불합리한 상황에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그녀의 우유부단한 태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처지를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Ⅲ. 저항의식의 성장

1. 인습에의 저항

빅토리아조 시대에는 남녀 역할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어서 여성은 순결하고 도덕적인 존재이어야 하며,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의 정신적 안식처 역할을 하는 ‘집안의 천사’ (Angel in the house)가 이상적인 여성상이었다. 하디가 『더버빌가의 테스』에 ‘순수한 여인’ (Pure Woman)이라는 부제를 붙여 놓은 것은 당시 여성에게만 순결을 요구했던 ‘성적 이중 기준’ (the sexual double-standard)²¹⁾의 부당함을 폭로하고자 함이었다. 이는 작품 속에서 테스가 맺게 되는 대표적인 두 인물에 의해 극적으로 드러나게 되며 그 중 하나가 테스의 남편인 에인젤이다. 에인젤의 깊은 내면에 감춰져 있던 남성중심 이데올로기적 의식은 농촌에서 낙농기술을 배우며 사회의 관습이나 규율을 멀리하고 자연이 정하는 율법에 따른 삶을 살고자 하는 그의 이상에 의해 잠시 가려져 있을 뿐이다. 불가항력의 현실 앞에서 그의 신념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린다. 에인젤은 자신의 과거의 방탕한 생활을 테스가 용서해 주기를 바라면서도 정작 그녀가 순결을 빼앗겼던 체이스 숲의 사건에 대해 고백했을 때에는 그의 의식속에 잔잔히 흐르고 있던 이중적인 논리의 단단한 광맥을 드러낸다. 남성의 과거는 용서가 되고 여성의 과거는 그녀의 실재마저 부정할 만큼, 당대의 여성에 대한 순결과 도덕성의 강요는 가혹할만하다.

그러나 테스는 이러한 여성에게만 속박되는 순결의 논리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명한다. 그녀의 한껏 고양된 양심의 형태를 기반으로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게 된다. 이는 서로의 과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함에 있어 사회계층이나 남녀에 구분이 없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테스의 결단이었다. 하지만 에인젤이 그녀에 대한 거부 반응을 표출했을 때, “당신이 용서받은 것같이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도 당신을 용서해 주지 않았어요, 에인젤” (Forgive me, as you are forgiven. I forgive you, Angel.)(248)이라고 말하며 남성과 여성의 순결에 있어서의 동등한

21) Rosemarie Morgan, *Women and Sexuality in the Novels of Thomas Hardy* (London, New York: Routledge, 1991), p. 84.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 즉 자신이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로 남성에게는 용인되나 여성은 큰 죄인으로 치부되어야만 하는 남녀 차별적인 논리에 반기를 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지 않을 것임을 감지한 테스는 에인젤이 이제껏 품었던 꿈과 계획을 지켜주기 위해 그를 떠나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된다.

백를 짊어 가는 듯한 이별의 아픔을 뒤로 하고서라도 끝내는 에인젤이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 주고 다시 그녀의 곁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잃지 않는다. 하지만 그에게서 편지 한 장 없는 막연한 기다림과 고통 속에 집요하게 이어지는 알렉의 구애에 그녀는 자신의 남편에게서 부당한 괘시를 받고 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자신이 치르고 있는 죄 값이 언제쯤 끝을 맺게 될지 막연한 상황에서 그녀는 그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에게 내려지는 그의 가혹한 심판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히게 된다.

아, 왜 날 이렇게 심하게 다루나요, 에인젤! 난 그런 대접을 받을 만큼 잘못하지 않았어요. 모든 걸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았어요. 난 당신을 절대로, 절대로 용서하지 못해요! 내가 당신에게 나쁜 짓을 할 의도가 없었던 건 당신도 잘 알 거예요. 그런데 왜 당신은 날 나쁘게 대하는 거죠? 당신은 잔인해요. 정말 잔인해요! 당신을 잊도록 노력할게요. 당신에게서 받은 것은 오직 부당한 대접밖에 없어요!

T(376)

테스는 과거를 고백한 뒤 에인젤이 자신에게 내린 처사를 인정하였지만 이제껏 그의 사상과 신념을 믿고 따랐던 테스는 그가 자신의 잘못을 용서하고 다시 돌아와 줄 것이라 믿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녀의 믿음을 배반하고 있다. 테스가 진보적 인간으로 이상화했던 에인젤은 오히려 그녀로 하여금 평생 죄의식을 느끼며 고통 속에서 살도록 내버려 두고, 계속되는 유혹의 손길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며 그에게 도움을 호소하지만 반항 없는 메아리일 뿐이다. 테스는 이제 에인젤의 몰인정한 태도를 무조건 수긍할 수만도 없는 노릇이고 이제는 그런 그의 행동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면서 자신을 바라보는 사회인습과 남성주의 가부장제 의식이 옳지 않다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실제로 테스가 주변의 이목과 편견을 과감하게 뿌리치고 자신의 주관에 따라 내린 판단을 믿고 고수하는 그녀의 결단력은 현실적으로는 그녀의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한 상황을 충분히 예측하고도 유혹을 과감하게 뿌리칠 수 있는 신여성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녀가 자신의 첫 남자 즉, 자신의 처녀성을 빼앗아간 알렉과 결혼을 하지 않은 것은 당시의 인습으로는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주변의 따가운 눈초리와 비난을 감내하면서까지 그를 떠난 테스의 결단은 인습의 무비판적인 허용을 거부하는 용기 있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장날 체이스 숲에서 알렉에게 순결을 빼앗기고 그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지만 이를 빌미로 알렉에게 책임을 떠맡기고 계층 상승을 시도한다거나 경제적인 안정을 누리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그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과감히 고향으로 다시 되돌아간다. 테스는 자신이 사랑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신의 일부를 빼앗기고 이러한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감을 느끼고 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온 건 아니지? 그렇지?

그건 사실 이예요.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왔더라면, 또 진심으로 사랑했거나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면 지금처럼 내 자신을 미워하거나 저주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잠시 눈이 어두워졌던 것 뿐 이예요. 그 이상 아무것도, 또 달리 생각할 것도 없어요. 내가 그 쪽의 의도를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어요.(88-89)

알렉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며, 그녀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녀를 설득해 보지만 테스는 이를 빌미로 그의 소유물이 되는 것을 묵인하지 않는다. 당대의 남성중심 이데올로기라는 기준에서 본다면 그녀는 자신의 첫 남성인 알렉을 자신의 남편으로 받아들이고 그와 결혼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하지만 자존심 강한 테스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받지도 않고 받을 수도 없어요! 당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노예밖에 될 수 없는 그런 짓은 절대로 할 수 없어요!” (89)라고 외치며 이러한 당대의 인습에 도전하듯 단순히 알렉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거나 이유 없이 도움을 받는 것은 자신이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태도를 피력한다. 그녀의 순결을 빼앗아간

대가로 그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자신이 그의 소유물임을 인정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훗날 플린트콧 애쉬에서 만난 알렉은 테스에게 “당신을 경멸하지 않은 이유는, 오직 순결하기 때문이었소. 당신은 자기 처지를 깨달았을 때 재빨리 결단력 있게 내 곁에서 떠났소” (342)라고 말하며 그녀의 결단은 그녀의 주체성을 지켜 준 의미 있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알렉의 끊임없는 구애에도 끄덕하지 않고 자신의 자존심과 신념을 지켜나갔던 테스가 그의 정부가 되기를 자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3대로 한정된 토지 차용 계약이 끝나고 갱신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테스는 남겨진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알렉에게 다시 돌아간다. 반면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 브라질로 떠난 에인젤이 테스에게 가혹한 죄의식을 씌워 그녀를 버린 자신의 무책임한 행동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 테스를 찾는다. 테스와의 극적인 재회는 이루어졌지만 테스는 에인젤이 결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란 알렉의 거짓말을 믿고, 자신의 가족을 거두어준 그의 아내가 된 뒤였다. 알렉은 끝끝내 테스가 그렇게 기다렸던 남편과의 또 다른 이별을 받게 만들었다. 테스는 이에 울분을 참지 못하고 알렉을 살해하기에 이른다. 테스의 살해행위는 더 이상 그에게 굴복하지 않고 이제껏 자신의 자유를 속박하던 굴레를 벗어나려는 극적인 의지의 표현이다. 즉 이제껏 자신의 양심을 짓눌러왔던 과거와의 결별인 동시에 그러한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하디는 남편을 살해한 테스가 죽이고 싶었던 것은 그녀의 남편이 아니라 그 상황이었다라고 밝히고 있다.²²⁾ 테스는 알렉을 살해했지만 이것은 인간으로써의 한 존재를 살해하는 것에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껏 자신을 예속해 왔던 억압적인 상황을 깨뜨리고 싶었던 것이다. 즉 알렉을 살해함으로써 그에 대한 단순한 복수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을 가두었던 당대의 남성의 예속, 가부장제, 순결한 여성에 대한 개념에서 벗어나려 했던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빅토리아조 남성중심 성이데올로기 내에서 성에 대한 이중논리는 남성과는 차별적으로 여성의 성적인 외형묘사나 성적 욕구의 표출을 인정하지 않았다. 중산계급 여성의 육체는 시각적으로 감추어진 육체로만 재현되면서 빅토리아 문화의 숭배 대상이 되었다.²³⁾ 이 같은 억압적 문화에 반기를 들고 있는 하디는, 남성은

22) Florence E. Hardy, *The Life of Thomas Hardy* (London: Macmillan, 1965). p. 221.

성적인 욕망을 느끼고 이를 표출하는 것은 당연히 되면서도 여성은 자신의 성적 매력을 발산하거나 그 욕망을 표출하는 것이 부당한 것으로 여겨지는 당대 이중적 성 윤리에 동조하지 않고 작품 속 여성 인물들의 육체와 성적욕망을 묘사하고 있다. 부인회 들놀이에 나온 테스의 외형묘사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다른 처녀들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시선 앞에서 고개를 떨어뜨린 채 어색해 하는 전형적인 시골처녀의 모습으로 묘사하는데 반해, 테스는 여성적인 아름다움과 매력을 한껏 발산하고 있다.

이 소리에 행렬 속의 한 젊은 처녀가 머리를 돌렸다. 그녀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지는 않았으나, 몹시 아리따운 처녀였다. 잘 움직이는 작약빛 입술과 크고 천진스러운 눈이 얼굴빛과 몸매에 풍부한 표정을 더해 주었다. 머리에는 붉은 리본을 달고 있었는데, 흰옷을 입은 이 모임 속에서 이같이 화려한 차림새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녀뿐이었다.(20)

빅토리아조의 사이비 경린주의 사회에서는 가정의 영역 안에 존재하는 중산계급 여성의 육체가 미화되고 숭배되어졌던 것과는 달리, 노동계급 여성의 경우에는 가정을 벗어나 길거리를 헤매는 존재로써 매매나 교환의 대상으로 여겨질 만큼 타락한 육체로 비하되고 있다.²⁴⁾ 하지만 하디는 오히려 ‘집안의 천사’에서 벗어나 집 밖에서 남성과 동등하게 어울려 일하는 노동계층 여성을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들판에서 밭 다발을 묶는 남성들은 그냥 일하는 사람에 불과하지만 여성들은 자연과 동일시 할 수 있을 만큼 아름답고 자연스럽다.

그러나 밭단을 묶는 사람들 가운데도 가장 관심을 끄는 건 여자들이었다. 평범한 가정의 자리를 떠나 들판에서 움직이는 여인들을 보면, 자연과 어우러져 생기가 넘치기 때문이다. 남자들은 밭에서 일하는 사람에 불과하지만, 여자들은 들판의 일부가 되어 여자들의 한계를 뛰어 넘어 자연의 요소를 빨아들여 그것과 동화되어 버렸다. (100)

23) 장정희, 『토머스 하디와 여성론 비평』 (서울 : L.I.E., 2007), p. 128.

24) 장정희, 『토머스 하디와 여성론 비평』 (서울 : L.I.E., 2007), p. 128.

낮잠에서 깬 테스가 계단을 내려오며 하품하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에인젤이 받아들이는 이미지 또한 아름다움으로 찬탄하다.

테스는 클레어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거기에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녀가 길게 하품을 하자 뱀처럼 새빨간 입 속이 들여다보였다. 그녀가 한 쪽 팔을 땅아 올린 머리채 위까지 쪽 뺨쳤으므로 엔젤은 그녀의 그을지 않은 뺨 살결을 보았다. 잠에서 막 깨어난 그녀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꺼풀을 눈동자 위로 무겁게 내리덮여 있어 넘칠 듯한 풍만함이 온몸에서 풍기는 것 같았다. 그것은 여인의 영혼이 육체로 표현되고, 육체의 아름다움 속에서 정신이 돋보이는 순간, 다시 말하면 성 자체가 유난히 드러나는 순간이었다.(187)

테스의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움이 표출되는 순간은 그녀가 의도가 개입되지 않은 자연적이며 본능적인 순간이다. 남성을 유혹하려 들거나 육감적으로 육체를 드러내고자 하는 거리의 여성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스의 외모에서 자연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며 육체보다는 정신적 아름다움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다.

테스가 느끼는 성적 욕망을 직접적으로 시사하지는 않지만 슬로우프 저택에 있는 온실에서 알렉이 건네주는 딸기를 받아먹는 테스의 태도를 통해 암시적으로 그녀가 느끼는 성적욕망과 이를 뿌리치려는 이성 사이의 첨예한 대립 구도를 발견하게 된다.

“아니, 아니예요!” 그녀는 그의 손과 자기 입술 사이를 손가락으로 막으면서 재빨리 말했다. “제 손으로 먹겠어요”

“바보같은 소리!” 그가 고집을 부렸다. 테스는 난처한 표정으로 입을 벌려 딸기를 받아먹었다.

그들은 온실 속을 거닐며 얼마 동안 시간을 보냈다. 테스는 반은 즐거운 마음으로, 반은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더버빌이 주는 딸기를 받아먹었다..(47)

하디는 여성에 대한 성욕을 인정하지 않았던 당대인들의 보편적인 인식을 과감하게 거부하고 테스를 매개체로 하여 단순히 여성은 남성의 성욕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 또한 본능적으로 자신의 성적 자극과 욕망(Self-erotic powers and desires)에 주도적인 행위자가 될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성적욕구라는 것은 남성에게만 특권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이며 자연스러운 자기표현이다. 따라서 종전의 테스와 알렉의 관계를 ‘범하는 자’와 ‘희생자’로 간주할 수 없으며 체이스 숲에서의 사건 또한 테스를 일방적인 피해자로 볼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녀가 입고 있던 얇은 하얀 모슬린의 이미지가 알렉의 성욕을 자극하였고, 유혹하였다고도 보는 관점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테스를 타락한 여성, 거리의 여성으로 매도할 것이 아니라 남성과 동등한 인격체로서 바라봐 주어야 할 것이다.

2. 기독교 의식의 거부

기독교 순결주의에 의하면 테스는 순결하지 못하고 더럽혀진 여성으로 분류되며 그녀의 신체는 수치 대상이 된다. 테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만난 한 청년이 썩 내려가는 “너희 멸망은 잠잠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 간음하지 말지니라-” (92) 라는 성경 구절은 테스를 타락한 여인으로 각인시키고 테스는 이에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테스는 이에 순응하지 않고 “시시하게 하느님이 이런 말을 하셨다고는 믿어지지 않아!”(Pooh-I don't believe God said such things)(92)라고 비웃는 듯이 중얼거린다. 테스는 당시 사회적 배경을 기초로 하여 기독교 윤리가 제시하는 인습에 대한 도전과 저항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신에 대한 절대적 믿음과 절대적 가치에 대한 도전이라 볼 수 있다. 성경을 통해 전달되는 ‘신’의 말씀에 의구심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맹신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신에 대한 도전이고 절대 진리에 대한 거부이다.

기독교 의식에 대한 테스의 저항적인 태도는 알렉과 그녀 자신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행한 세례의식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 테스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죽어가는 아기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스스로 세례의식을 행한다. 세례의식을

행할 때의 그녀의 모습은 늠름하기도 하고 대담하기도 하여 마치 속세를 떠난 사람처럼 보인다.

테스의 눈동자에 조그맣게 반사된 촛불이 금강석처럼 반짝였다. 동생들 눈에는 누나가 점점 더 경건하게 보여서 감히 말을 붙일 엄두도 못 냈다. 지금 그녀의 모습은 사람이 아니라 우뚝 서 있는 탑처럼 보였고, 또 저희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무서운 존재같이 여겨졌다.(107-108)

죽어가는 아기에게 세례를 행하는 그녀의 모습 자체가 기성 종교에 대한 도전이며 기독교 정신에 대한 도전이다. 그녀의 세례행위는 우선 목사라는 직위와 역할을 침범한 것으로서 당시 ‘세례행위’는 목사만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즉 기독교 규약에서 여성에게는 접근을 제한했던 ‘목사’의 행위를 모방한 것은 당시 제한된 여성의 영역을 넘어선 행위이며 이를 통한 형식적인 기독교 의식과 절차에 대한 간접적인 저항인 것이다. 또한 자신의 세례행위가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철저히 그것에 대해 개의치 않겠다 라고 생각하는 테스의 모습에서도 드러나게 된다.

세례를 주고 나서부터 느낀 마음의 안정은 아기가 죽었는데도 그다지 흔들리지 않았다. 한나절이 되었을 때에야 아기의 영혼에 관한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만약 이런 부당한 세례 흉내를 하느님이 인정하지 않거나, 또 정식으로 세례를 받지 않은 자는 천당에 갈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런 천당 따윈 없어도 좋고, 무시할 수 있다고 그녀는 생각했다.(108)

교구목사에게 가서 기독교 의식으로 아기를 매장해 달라고 부탁 하지만 거절을 당하자 테스는 교회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다.

전 그런 목사님을 존경하지 않겠어요! 교회엔 두 번 다시 안 나가겠어요!

그렇게 지각없는 소리는 하는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해 주지 않더라도 죽은 아기한테는 마찬가지로 일 거예요, 그렇죠? 성자

가 죄인에게 말씀하듯 하지 마시고 인간적인 면에서 제게 조언해 주세요!(109)

교구목사는 성직자의 양심과 인간의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며 테스의 멧멧한 모습과 정성에 감동하여 테스가 세례를 준 행위가 자신이 하는 행위와 다를 것이 없다고 인정을 한다. 하지만 기독교 의식으로 매장을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거부할 하고 있다. 테스가 절망의 상황에서 도움의 손길을 요청해 왔을 때 종교는 이를 조건 없이 잡아 주지 못하고 있다. 인간의 고통을 구원해주고 잘못을 용서해 주어야 하는 종교가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테스는 목사의 도움 없이 묘지 한 구석에 아기를 묻고 자기가 만든 조그만 십자가를 무덤에 꽂는다. 테스는 이제 종교에 대한 불신과 저항의식을 갖추고 과거의 수동적인 피해자에서 벗어나 자신의 의지에 따라 결정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주체적인 인물로 한층 성장한다.

그러한 사색으로 인해 단순한 처녀였던 테스는 복잡한 여인으로 변모했다. 깊은 사색의 흔적은 얼굴에도 나타났으며 이따금 목소리에서 서글픈 음조가 풍기기도 했다. 큰 두 눈은 더욱 커지고 표정은 한층 풍부해져 남의 눈을 끌 만한 아름다움이 온 몸에서 넘쳐흘렀다. 지난 한두 해 동안 겪은 고초로 성격 또한 변해, 이제는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꺾꿀할 수 있는 강한 여인이 되었다.(112)

그녀는 정신적으로 한껏 고양되어 자신의 아이의 남편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아내가 되는 것을 포기했고, 세례를 받지 못한 아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천국에 대해 거부하는 모습을 보인다. 과거의 수동적인 여성에서 벗어나 테스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강인함을 지니게 된다.²⁵⁾

기독교 교리에 대해 거부감을 금치 못하는 테스는 그녀를 찾아온 알렉이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말에 “어떻게 기도를 해요?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 나를 위해 그의 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을 믿지 않게 되었는데요” (340)라고 말한다. 여기서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란 신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힘든 상황에서 자신의 편이 되어 주지 않았음에 분노를 느끼고, 이제는 더 이상 그 힘

25) Rosemarie Morgan, p. 89.

을, 즉 신을 믿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테스가 종교적 진리보다는 자연 속에서 삶의 이치를 깨닫고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기독교 교리나 신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텔보데이스로 떠나던 테스는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일요일 아침마다 읽곤 했던 시편을 생각해 내어 읊조린다.

오, 하늘의 태양과 달이여..... 그리고 못별들이여.....지상의 가축들이여..... 공중에 나는 새들이여..... 들짐승들과 가축들이여..... 세상의 아들이여..... 주님을 축복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영원토록 그들 경배할지어다!(119)

테스가 살해를 저지르고 에인젤과 도피를 떠나 마침내 도착한 곳은 이교도의 신전이었던 스톤헨지(Stonehenge)이다. 테스는 이곳에 있는 제단과 같은 석판 위에 주저앉게 되자 “난 여기 있는 게 좋아졌어요. 이곳은 참 조용하고, 적막하기까지 해요. 벽찬 행복을 맛 본 뒤라서 인가 봐요. 내 머리 위에는 널따란 하늘만 보여요. 마치 세상에 우리 둘 외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416) 라고 말하며 이제껏 다른 곳에서 느껴보지 못한 편안함을 이곳에서 느끼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이곳은 이제껏 자신을 옥죄어 오던 윤리, 도덕, 제도 등이 미치지 않는 곳이다. 테스 자신도 이곳의 고적한 분위기에 동화되어 사회의 이목과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 테스가 최후를 맞이하는 공간으로, 인정도 없고 동정도 없는 엄격한 사회제도가 존재하는 인간세상이 아니라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자연법에 의한 정당한 처벌을 바라기 때문이다. 셸리 스테이브(Shirley A. Stave)는 “알렉을 죽인 테스의 행동이 도덕관의 부족으로 비춰지지만 테스는 기독교 이전의 원시적인 이교도의 도덕관을 나타내고 있다” 고 말한다²⁶⁾ 기독교 윤리관의 논리에 따르면 그녀가 그의 잘못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에게 징벌을 내릴 수 있는 자연법을 선택하여 억압된 사회와 종교적 차별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이다.

하디는 당대 기독교적 윤리관에 기인한 이중적인 판단기준의 부당함을 호소하

26) Shirley A. Steve, *The Decline of the Goddess: Nature, Culture and Women in Thomas Hardy's Fiction* (Westport: Greenwood Press, 1995), p. 109.

기 위해 테스의 반기독교적 행위를 바탕으로 자신을 소신을 밝히고 있다. 비록 그녀가 기독교 교리 하에서 부당한 취급을 받게 되지만 하디는 이에 머무르지 않고 테스의 저항의식을 내포함으로써 이에 반기를 들고 있다. 테스는 절대적인 종교의 무력 앞에 굴하지 않고 삶의 의지를 다져나간다. 종교적 관습은 더 이상 그녀를 속박하는 위대한 힘이라기보다는 그녀가 뛰어 넘어야 할 인생의 크고 작은 장애물에 불과하다. 절대 진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인간이 만들어 낸 인습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디는 테스의 각성을 통해 인간의 각성과 노력에 의해 불합리한 측면의 개선이 가능하며 그러한 모순을 수정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함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3. 주체성의 향상

테스의 부모들은 당대의 사회적 인습과 전통을 답습하고 고수하는 인물로, 이를 거부하는 테스의 입장과는 대치된다. 아버지 잭 더비필드(Jack Durberfield)는 고루한 사회계층의식에 젖어있고 어머니 조안 더비필드(Joan Durberfield)는 미신을 맹신하며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또한 이들 두 사람은 모두 공통적으로 테스의 결혼을 빌미로 신분상승이나 경제적인 안정을 갈구하며 신중계급에 편승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에 반해 테스는 부모들의 이런 의식구조에서 벗어나 차츰 주체적인 의식구조를 갖춰가는 신여성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의무교육을 받고 표준지식을 갖춘 테스와 상대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미신에 의존하는 어머니 사이에는 의식구조상 큰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미신과 설화와 지방 사투리와 구전되는 민요 같은, 빠른 속도로 사라져 가는 고물들을 껴안고 있는 어머니와, 초등 과정의 교육을 받고 교육 개정법에 따라 표준 지식을 얻게 된 딸 사이에는 보통 알려진 대로 200년의 간격이 있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제임스 1세 시대와 빅토리아 시대가 나란히 있는 것 같았다.(29)

이는 테스가 당대의 인습을 벗어나 주체적인 사고와 판단으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테스의 아버지인 잭 더비필드는 고고학에 관심이 깊은 트링엄(Tringham) 목사로부터 더비필드 집안이 유서 깊은 더비빌 가문의 직계 자손이라는 말을 듣게 된다. 이름뿐인 가문의 뿌리가 마치 그들의 앞날을 책임져 줄 것처럼 허황된 꿈에 부푼 잭은 분수에 맞지 않게 마차를 불러 타고, 조상의 혈통을 축복하기 위해 밤늦도록 술을 마신다. 그리고 조안은 한 술 더 떠서, 테스를 트랜트리지(Trantridge)의 돈 많은 더비빌가로 보내 친척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도움을 얻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그 집 아들과의 혼사를 성사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처지를 개선하려는 탐욕을 보이고 있다. 이들을 통해 드러나는 가족주의 해체의 실상이 테스를 고통과 절망 속에서 좌절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 오히려 테스로 하여금 자신의 의지를 확고하게 만들고 독립적인 여성으로 성장시키고 있다.

이러한 테스의 눈에 어머니 조안의 모습은 비현실적이고 허황될 뿐이다. 생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자식을 낳은 어머니의 지각을 테스는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정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지각없는 행동이었다고 여긴다.

나이가 들고 상황이 어떤지를 알게 되면서, 여동생과 남동생들을 돌보고 먹이는 일이 말할 수 없는 고생인데도 어머니가 생각없이 너무 많이 낳아 그녀에게 떠맡기는 것을 보고, 테스는 자신이 맬서스의 인구론자가 되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의 지능지수는 행복한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았다. 조안 더비필드는 단지 동생들의 수에 또한 덧붙은 사람이며, 신의 섭리에 매달려야 하는 가족 중에서도 가장 순위도 아니었다.(43)

더비필드는 전날의 과음으로 별통을 운반하는 일을 못하게 되고, 이에 어머니는 테스에게 어제 부인회에서 그녀에게 관심을 보였던 젊은이에게 부탁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한다. 하지만 자존심 강한 테스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며 단호하게 말하고는 어린 동생 에이브러햄(Abraham)을 데리고 자신이 직접 새벽길을 떠난다. 하지만 자신의 실수로 인해 집안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었던 말,

프린스가 죽게 되자, 책임감을 느낀 테스는 트랜트리지의 더버빌 부인 댁으로 원치 않는 방문을 하게 된다. 테스의 이러한 행동을 유발한 것은 그녀의 부모의 의도처럼 친척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구걸하려는 것도, 그 집 아들과 결혼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다. 단지 자신의 부주의로 인한 프린스의 죽음에 자신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무엇이든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마을에서 이름난 게으름뱅이였던 아버지를 가장으로 두고 어머니가 줄줄이 낳은 많은 자녀들 중 맏이로 자라난 터라, 집안의 무거운 짐이 테스 본인에게 얹혀지는 것을 어릴 때부터 느껴왔기에, 실질적 가장으로서의 의무감과 책임감이 행동을 결단하는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테스가 자신의 주체성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남성으로부터 보호본능을 자극하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여성의 역할을 거부하는 적극적인 모습인 것이다. 테스를 탐하던 알렉이 호시탐탐 그녀를 정복할 기회를 엿볼 때마다 테스는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알렉의 유혹을 뿌리쳤다. 말의 고삐를 잡은 알렉이 속력을 내며 테스의 키스를 요구했을 때도 그 요구를 뿌리치려 하지 않았던 자신의 경솔함을 깨닫고는 몸을 피하는 행동을 한다. 또한 원치 않는 알렉의 키스를 받고 수치스러워하며 그 흔적을 지워내기 위해 반복해서 입술이 닿았던 뺨을 닦아 내기도 한다. 그러한 행동이 알렉을 자극하고 또다시 그녀의 키스를 받아내기 위해 내리막길에서 말에 채찍을 휘두르자, 테스는 “좋아요, 당신 말대로 하겠어요!” (Very well sir)(62)라며 그에게 자신을 허용한다. 하지만 테스는 곧이어 위트있게 자신의 모자가 바람에 날려 떨어진 것처럼 하여 모자를 주어 오겠다며 말에서 내린다. 모자를 집어 든 테스는 다시 말에 올라타라는 알렉의 권유에 도전적인 “승리의 기쁨이 반짝이는 말투” (as her eye lit in defiant triumph)(62)로 “타지 않겠어요,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아는 이상 절대로 타지 않겠어요!” (Not again, if I know it!)(62)라고 말한다. 그리곤 다시 말에 오르지 않고 오륙 마일 정도 남은 길을 걸어가겠다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준다. 다시 말에 오르는 것은 알렉의 거친 행동을 용인하며, 그의 허리를 껴안고 자신의 안전을 그에게 의존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남성의 보호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하는 행위를 통해 자립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을 연약한 존재로 만드는 것은 선천적으로 남성의존적인 경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여성

에 대한 선입관을 통해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여성을 남성의 예속물로 보고, 수동적이고 순종적인 여성을 기대하고 있는 알렉에게 이러한 테스의 당찬 태도는 그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알렉은 테스가 자신을 속인 것에 울분을 참지 못하고 그녀에게 욕을 퍼붓게 된다. 하지만 테스는 “그런 나쁜 욕을 하다니, 부끄러운 줄 아세요! 난 당신이 싫어! 당신을 증오하고 미워해요” (62)라고 소리를 지르면 그의 폭력적인 언행에 굴하지 않고 꺾끗하게 대항한다. 여성은 남성에게 순종적이어야 한다는 당대의 남성중심 가부장제 의식에 물들어 있던 알렉에게 테스의 저항적인 태도는 치욕스러운 순간이었을 것이다. 테스가 이러한 알렉의 강압적인 태도에 연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용서를 구했다면 그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이 될 것이지만 테스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의 행동이 부끄러운 행동임을 소리쳐 말한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도 해보지만 이내 그러한 행동이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슬로우프 저택으로 향한다. 이러한 모습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기 위한 결단력 있는 행동이며 정신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알렉에게 처녀성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자고 매달리지도 않았고 알렉이 자신과 결혼하도록 만들지 못한 테스를 나무란다. 자의든 타의든 간에 자신의 첫 남성과 결혼하지 않은 것은 당시의 윤리적인 관점에서 옳지 않은 것이었지만 그녀의 입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당대의 관습과 주변의 이목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그녀의 신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그를 완전히 좋아한 적이 없었으며 지금은 그를 조금도 좋아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두려워했고, 그 앞에서 움츠러 들었으며, 자신이 어찌지 못하는 상황을 날렵하게 이용하는데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했다. 그러다 잠시 동안 그녀는 그의 열성적인 태도에 판단이 흐려졌으며, 혼돈스러운 마음으로 얼마 동안 그에게 행복했던 것이다. 그다음 갑자기 그를 경멸하고 싫어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로부터 도망을 친 것이었다.(94)

강한 자존심을 가진 테스에게 슬로우프(Slopes) 저택에서 알렉과 생활하는 몇 달 동안, 자신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알렉의 태도는 마수와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그녀도 잠시 그의 열렬한 태도에 마음이 흔들린 적도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러한 자신이 잘못되었음을 발견한 뒤 과감히 그의 곁을 떠난다.

그녀의 주체 의식의 성장은 괴로움을 딛고 일어나 ‘재기’의 결의를 다지는 모습을 통해 발견하게 된다. 테스는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며 괴로워 하지만 이에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찾겠다는 의지를 굳힌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고 이제 자신은 현재의 삶에 충실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보인다.

이번 주 여러 달 만에 처음으로 큰 결심을 하고 들로 나온 것은 테스 자신에게도 놀라운 일이었다. 경험 없는 그녀가 혼자서 상상할 수 있는 참회의 온갖 장치가 발동되어 자신의 고통치는 심장을 지치게 하고 소진한 끝에 마침내 평범한 상식이 그녀에게 길을 밝혀 주었다. 그녀는 다시 한 번 자신이 유용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과, 그래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혼자 독립하는 감미로움을 맛보겠다고 생각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며, 그 과거가 어떤 것이었던 간에 이제 자신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다. 결과가 어떤 것이었던 시간이 그것을 덮어 주리라. 몇 해가 지나면 그들 모두는 전에 조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풀 아래 묻히고 잊힐 것이다. 수목은 전처럼 푸를 것이며, 새들이 노래하고 태양은 어느 때와 다름없이 빛날 것이다. 눈에 익은 주변은 그녀의 비탄 때문에 어두워진 일이 없었고 그녀의 고통 때문에 병든 일이 없었다.(103)

프린스의 죽음과 강제에 의한 처녀성의 상실, 그리고 아기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삶의 풍파를 겪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힘든 시간들을 테스는 잘 견뎌내고 있다. 그녀는 프린스의 죽음으로 가족의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결단을 내리고 스토우크가를 방문하여 방법을 강구하였고, 알렉에게 처녀성을 빼앗겼을 때에는 단호하게 그의 도움을 거절하며 그 곳을 떠난다. 또한 혼자 낳아 기르던 아기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조차 차분하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삶의 재기를 강구하게 된다. 즉 자신의 불행한 삶을 비판하거나 좌절감에 빠지지 않고, 스스로의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실현하는 정신적인 강인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테

스가 그 간의 절곡의 고통에 빠져있던 자신을 스스로의 깨우침과 노력을 통해 구원해 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희망으로 가득 찬 삶의 고통이 몸속에 뜨겁게 살아 움직이는 것을 느끼던 테스는 아픈 과거와 슬픔을 묻어 둔 채, 새 출발을 위해 마을을 떠나게 된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자신이 향하던 텔보테이스 농장은 옛날 더버빌 가문의 영지에 인접해 있었다. 농장으로 향하던 길에 조상들이 묻힌 교회가 있는 킹스베리를 지나 치며 테스는 자신을 불행으로 이끈 조상들을 숭배하지 않고 오히려 저주한다.

그녀는 이제 이들 조상들에 대해 존경심을 품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를 일시나마 우쭐하게 했던 그들이 미웠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조상의 유품이라고는 오래된 인장과 순가락뿐이었다. ‘홍, 나에게는 아버지만큼 어머니의 피도 들어 있어! 내 예쁜 모습은 전부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거고 그 어머니는 목장의 젓 짜는 여자에 지나지 않았어’ (118)

그녀는 낡은 인습이나 가문의식에 젖어 있는 아버지나 어머니처럼 이름뿐이 자신의 가문에 대해 자랑스러워한다거나 우월감을 느끼지 않으며, 이를 가지고 신분상승을 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대접 받기를 원치 않는다. 현실은 현실일 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허울뿐인 가문의 이름과 낡아빠진 도장과 은수저뿐이다. 테스는 자신이 양친에게서 똑같은 피를 물려받았고, 자신의 아름다움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았으며 엄마도 젓을 짜는 여자에 지나지 않았었다고 말한다. 테스는 비현실적으로 ‘더버빌’이라는 가문의 이름에 의존하지 않고 어머니가 젓을 짜는 여인이었던 것처럼 자신도 현실로 돌아가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가장 미천한 사람으로부터 가장 고상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생에 골고루 퍼져 있는 감미로운 즐거움을 어딘가에서 찾으려는, 거역할 수 없는 보편적이며 자발적인 충동이 마침내 테스에게도 일어났다. 이제 겨우 스무 살의 젊은 여인으로 정신적으로나 감성적으로 아직 성장을 멈추지 않은 그녀에게 시간이 지나도 인상이 변하지 않는 사건은 없었다. 원기와 감사하는 마음과 희망이 점점 솟아올랐다. (119)

텔보데이스 농장에서 만난 에인젤이라는 남성은 그녀로 하여금 과거를 잠시 동안 잊게 해 준다. 그는 진보적인 인물임을 자처하며 기존의 관습에서 탈피한 인물처럼 보이지만 순결한 여인을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여기고 자신의 관념의 틀 속에 테스를 끼워 넣으려 했다는 점에서 테스의 정신적인 폭군이 되고 있다. 그러나 테스는 에인젤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바라봐주지 않고 그녀를 환상적인 요정이나 여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 ‘아르테미스’와 ‘테메테르’와 같은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거부한다.

앞에서 말했듯이 바로 이 순간 그녀의 모습이 가장 인상적으로 보였다. 그녀는 짓 짜는 처녀가 아니라 여인의 환영의 정수로, 여성 전체가 한 전형으로 압축된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었다. 그는 반 농담조로 그녀를 아르테미스, 테메테르, 그 밖의 여러 환상적인 이름으로 불렀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테스라고 불러 주세요.” 옆으로 눈길을 주면서 그녀가 말했다.(146)

테스는 자신을 이상화 된 존재로 바라보는 에인젤과는 달리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봐 주기를 원하고 있다. 자신의 이름을 있는 그대로 불러 주는 것이야말로 여성으로서 테스가 자신의 주체성을 지키는 한 방법이 된다.

텔보데이스 농장에서 만난 에인젤에게 마음이 끌린 테스는 그의 끈질긴 구애에도 과거 알렉에서 순결을 뺏겨버린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기며 자신의 양심이 허락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의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계속되는 에인젤의 청혼을 끝내 받아들인 테스가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은 자신의 감성이 이성에게 승리를 거두어, 자신이 지키려던 양심을 끝끝내 지켜내지 못한 죄책감의 표출이다.

왜 그러지 테스?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당신 아내가 되고, 당신을 행복하게 해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뻐요!

하지만 기뻐서인 것 같지 않은데.

제 결심이 꺾인 걸 생각하고 우는 거예요! 저는 죽을 때까지 결혼하지 않기로

맹세했었어요!(208)

에인젤과 헤어진 뒤 집으로 돌아온 테스는 어머니에게 자신이 남편에게 사실을 고백했고, 그래서 남편이 떠났다는 것을 말하며 울음을 터뜨린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를 위로하기 보다는 그녀의 그런 솔직한 고백이 바보 같은 짓이라며 소리를 지른다. 이에 테스는 “다음에 이런 기회가 다시 온다 하더라도 역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If-if-it were to be done again-I should do the same)(276)라고 말하며 자신의 결정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 자존심이 강한 테스가 친정에 자신의 별거 상태를 알리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를 비밀에 붙인다. 에인젤이 그녀를 버리고 브라질로 가기 이전에 테스를 위해 은행에 약간의 돈을 예금해 두었으며 급한 일이 생길 때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연락하라고 편지로 알린다.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추운 겨울 혹독한 추위와 싸우며 노동을 해야 했지만 그녀는 그 어느 누구의 도움에도 의존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 나간다. 그녀는 자신의 자존심을 팔아 사랑이나 동정을 구걸하려 하지 않는다. 그녀의 이런 강한 자존심은 그녀가 플리트콤 애쉬에서 마리안을 만났을 때 자신은 일을 해야 하며, 자신을 남편의 성을 딴 클레어 부인이라고 부르지 말고 예전처럼 ‘테스’ 라고 불러 요청하는 부분에서 표출된다. 즉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력갱생하겠다는 그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다시 새로운 일자리를 얻기 위해 초크 뉴턴 마을을 향하던 테스가 숲속에서 잠을 청하고 일어난 다음날 아침, 전날 사냥꾼의 총에 맞아 상처 입은 새들이 쫓겨 도망치다가 간밤에 테스가 있던 주변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다. 이 새들은 빅토리아조의 사회의 인습 속에서 무력하게 희생당하는 테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테스는 여러 짐승 가운데에서도 자신보다 약한 동물을 선택하여 사냥을 하고 자신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않은 생명을 살생하는 사냥꾼들과 그들의 잔인함 앞에 무참하게 희생당한 새들을 바라보며 지난 밤 자신의 과거를 부정, 별과 강압, 그리고 죽음으로 기억되리만치 ‘허무’ 그 이상으로 여겼던 자신의 부질없는 생각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다시 자신의 슬픔에 맞서려는 강한 의지를 다진다.

가없는 친구들. 이렇게 비참한 광경을 보고도 날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존재라고 생각하다니! 나에게서 육체적 고통이라고는 눈곱만치도 없는데! 육신이 갈기 갈기 찢어진 것도 아니고, 피를 흘리는 것도 아니야. 음식을 먹고 옷을 입는데 쓸 두 손이 아직 멀쩡한데 말이야.(298)

테스는 이제 과거의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거나 기껏해야 소극적으로 저항했던 모습에서 벗어나 자신의 주체적인 의지를 형성해가고,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인간사회에 대한 저항의식을 보인다. 운명의 장난처럼 테스는 에민스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에베스헤드 마을에서 설교자로 마을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알렉과 또다시 우연히 마주친다. 그 길로 테스를 따라온 알렉은 개심자로서 자신이 테스를 구원하기 위하여 따라왔다는 말을 한다. 이에 테스는 “당신 자신은 구원하셨나요? 자선은 먼저 저희 집부터라는 말이 있던데요” (Have you saved yourself? Charity begins at home, they say)(328)라며 경멸하는 듯 태연하게 말한다. 이루어 지지 말았어야 할 운명적인 두 사람의 만남이 있는 뒤로, 한 때 종교로 구원을 받아 회개를 하고 목자가 되었던 알렉은 과거의 본성이 끊어오름을 느낀다. 그 뒤로 테스에 대한 알렉의 끊임없는 구애가 이어지고 타작을 하는 날에 찾아 온 알렉의 무례한 말투에 테스는 벗어 놓은 그녀의 긴 장갑으로 그의 얼굴을 후려친다. 이제껏 자신의 불행을 야기하고 소심한 자신을 지배해왔던 과거의 어두운 기억으로 부터 더 이상 굴복하지 않겠다는 테스의 의지가 돋보이는 부분이라 하겠다.

식사를 하는 동안 벗어 놓은 가죽 장갑이 무릎 위에 놓여 있었으므로 테스는 재빨리 장갑을 들어 그의 얼굴을 후려쳤다. 투구처럼 무겁고 두꺼운 그 장갑은 정통으로 그의 입에 들어맞았다. 그 동작은 마치 화살을 가진 그녀의 조상들이 훈련을 거듭한 무술의 재현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였다. 알렉은 누웠던 자리에서 미친 듯이 벌떡 일어났다. 장갑에 맞은 상처에서 빨간 피가 비치더니 삼시간에 밀단 위로 입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다.(351)

그녀의 정신적인 성장의 정수를 보여주는 부분을 찾는다면 단연코 스톤헨지의 체포 과정에서 보여줬던 테스의 의연함이다. 알렉을 살해한 뒤 에인젤과 도피 행

각을 벌이게 되는데, 종착지인 스톤헨지에서 테스는 그녀를 체포하러 온 경찰들에게 둘러싸이게 된다. 하지만 테스는 두려움에 떨거나 도망치려 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상황을 예측이라도 한 듯, 자신의 결연할 의지를 보이며 스스로 떳떳하게 걸어 나간다.

“에인젤 무슨 일이에요? 날 잡으러 왔어요?” 놀라 일어서면서 그녀가 외쳤다.

“그래요. 그들이 왔어요.” 그가 말했다.

“올 것이 왔네요.” 그녀가 속삭였다. “에인젤, 난 차라리 기뻐요. 그래요, 기뻐요! 이런 행복은 오래갈 수가 없었어요. 나에게는 너무 과분했어요. 이제 충분히 행복을 누렸어요. 당신이 경멸하는 날까지 오래 살지 않게 되었어요!”

그녀가 일어나 몸을 튼 다음 앞으로 걸어갔으나 그들 중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자, 준비됐어요.” (418)

자신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을 보면서도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고 결연한 태도를 보이는 테스는 “준비 됐어요.” 라고 말하며 걸어 나간다. 이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표현이며 이러한 모습은 결코 그녀를 ‘운명의 희생양’으로만 간주할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그리고 테스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지만, 그녀의 도덕적 정신과 의지의 승리를 보여주는 정점은 ‘그녀의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디는 이를 ‘정의의 심판’은 이루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표현은 단지 사회법에 의한 살인자 테스의 처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겉으로 보여 지는 그녀의 죽음은 마치 사회적 제도와 관습으로 그녀의 ‘살해 행위’를 처형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하디가 이러한 극적인 장면묘사를 통해 전달하려는 테스의 죽음의 본질은 역경을 뛰어넘은 진실한 사랑의 추구인 것이다. 테스의 죽음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승리는 자기희생과 살고자하는 의지를 통해 불행과 어리석음, 무자비, 심지어 유전까지 이겨낼 수 있다는 하디의 신념의 표현이다.²⁷⁾

그렇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동생 리자-루(Liza-Lu)를 통해서 테스가 꿈꿨던 사회개선의 희망이 연장되어 진다. 고국을 떠나 있는 동안 정

27) Peter J. Casagrande, *Unity in Hardy's Novel: Repetitive Symmetries* (London: Macmillan, 1982), p. 209.

신적인 성장을 이룬 에인젤은 인생의 가치란 눈에 보는 아름다움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과 아름다움은 표면적인 행동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과 동기에 달려 있으며 과거 보다는 앞으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미래를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에인젤에게 테스는 스톤웬지 위에 석판에 누워 자신의 동생 리자-루를 돌봐 줄 것을 부탁한다. 더불어 자신이 죽게 되면 동생 리자-루를 아내로 삼아 줄 것을 부탁한다. 그렇게 되면 단지 자신의 죽음이 자신과 에인젤 둘 사이를 갈라놓지 않고 이어져 있는 것이 된다. 테스의 처형을 알리는 검은 깃발이 탑의 돌출부에서 펄럭이고 그 장면을 함께 바라보던 에인젤과 그의 처제 리자-루 두 사람은 기운을 되찾듯 함께 일어나 손을 마주잡고서 언덕을 내려간다. 하디는 결국 오래된 인습과 남성중심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난 에인젤과, 테스와 같은 피를 가지고 있는 동생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세상이 찾아 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장면은 일종의 ‘재생의 주제’ (a theme of rebirth)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²⁸⁾ 궁극적으로 자신의 남편이었던 에인젤과 자신의 동생 리자-루의 결합으로 과거의 인습, 사회제도, 그리고 억압에서 벗어난 새로운 세계로의 진입을 시사하는 것이다.

28) Richard Carpenter, *Thomas Hardy* (Boston: Twayne, 1964), p. 137.

IV. 결론

“더버빌가의 테스”에서 하디는 테스의 불행을 내재의지라는 절대적 힘에 국한시키지 않고, 테스 본인도 그 결과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단순한 내재의지라는 요소에 국한시켜 테스의 비극적인 운명이 야기된다는 과거 연구자들의 시각과 상이한 것이다. 즉, 하디는 테스의 불행과 더불어 인간들에게 정해진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종용하는 운명론, 결정론적인 입장이 아니라, 테스가 인생의 수많은 역경을 극복하며, 주체의식의 성장을 통해 사회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근대 유럽의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영국은 상업과 제조업의 발달을 바탕으로 급속한 도시화 현상과 함께 자본주의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경제적인 성장역사에 중추적인 위치에 놓인 만큼 많은 변화와 혼란을 감수하여야만 했다. 농촌중심 공동체 사회에서 상공업중심 자본주의 사회로의 변화의 과도기 속에서 전통적인 사회구조가 해체되고 사회계층의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전통 종교관이 과학기술 발전으로 도전을 받게 되면서 여러 가지 당면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하디는 이러한 변혁에 안타까움을 드러내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더불어 해결책을 모색해 보고자 했다.

하디는 당대 빅토리아조의 ‘여성의 문제, 결혼과 이혼문제, 남성중심 이데올로기 등’과 같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여성론적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더버빌가의 테스』라는 작품 속에서 운명이라는 탈을 쓴 당대의 불합리한 계층의식과 남성중심 이데올로기라는 문제에 대해 테스라는 인물의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폭로하고 있다. 여성에게만 순결을 요구하는 중산층의 성이데올로기 속에서 여성은 무자비한 노동력의 착취, 성적억압의 피해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 속에서 정신적 성장과 주체성을 찾아가는 테스의 행동을 통해 비록 운명의 대행자로 여겨지는 내재의지의 요소들 즉, 자연이나 환경과 같은 외적인 요인에 의해 불행을 겪게 되지만 그 속에서 좌절하거나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강인한 여성의 정신적 성장을 그림으로써 독자들에게 희망의 여지를 전달하고자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당대에 온갖 사회적 모순 속에서 억압당하는 계급인 노동자계층과 남성중심 성이데올로기 속에서 상대적으로 억압을 당하는 여성을 대표하는 인물 테스를 통해 모순된 사회 제도와 사회 인습에 대항하는 인간의 주체적인 의지를 표현해내고 있다. 즉, 내재의지라는 불가항력적인 힘을 통해 인간의 힘으로는 극복해낼 수 없는 불행한 운명을 그려냄과 동시에 이를 극복하려는 인간의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개선의 여지가 존재함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하디는 주인공들의 비참한 운명을 통해 단순히 측은지심에서 비롯되는 연민과 동정을 기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의 발전과 변화 속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 앞에 좌절하거나 순응하지 않고, 점차 정신적인 성장을 통한 저항의식을 표출해 보임으로써 인간에게 주어지는 불행한 운명을 자신의 의지에 의해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하디의 작품 대부분이 웨섹스라는 가상의 공간을 빌려 당대 산업혁명과 더불어 급진적인 경제 성장을 거듭하는 농촌의 현실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에 따른 문명의 이기가 오히려 농촌의 계층구조와 경제구조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그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많은 중산계층 노동자들이 임금노동자로 전락하는 비참한 삶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들이 이처럼 혹독한 노동과 비인간적 처우를 경험해야 했지만, 그 속에서 그 어느 누구에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자립을 고수하면서 이에 대항해 가는 당당한 신여성을 그리려 했던 것이다.

당대의 남성중심 성이데올로기와 더불어 순결과 금욕을 중시하는 종교적 분위기는 노동계층 여성을 상대적으로 타락한 여성과 비천한 여성으로 만들었다. 또한 부를 축적한 중산계층 부르주아 계급은 귀족계급의 허례허식을 모방하는 것에만 급급하여 거짓 신사와 같은 근엄함을 연출하고 체면을 중시하였다. 여기서 하디는 알렉과 같은 속물근성을 가진 중산계층 남성의 이기적이고 타락한 모습을 통해 위엄을 가장한 신앙인들의 허위의식을 각성시키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하디는 불가항력적일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테스라는, 어쩌면 낙약하고도 힘없는 한 여성을 통해서 희망의 여지를 독자들에게 제시함으로써 고통 앞에서 좌절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자신의 인생은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는 희망을 던져 주고 있는 것이다.

Bibliography

I. Primary Source

Hardy, Thomas. *Tess of the D'Urbervilles*. New York: Oxford UP, 1983.

II. References

Basch, Françoise. *Relative Creature: Victorian Woman in Society and the Novel*.
New York: Schocken, 1974.

Carpenter, Richard. *Thomas Hardy*. Boston: Twayne, 1964.

Casagrande, Peter J. *Unity in Hardy's Novel : Repetitive Symmetries*. London:
Macmillan, 1982.

Cecil, David. *Hardy: The Novelist*. Louisiana: Lyall Book Depot, 1975.

Elliot, Albert Pettigrew. *Fatalism in the Works of Thomas Hardy*. New York:
Russell and Russell, 1966.

Hardy, F. E. *The Life of Thomas Hardy*. London: Macmillan Press Ltd., 1965.

Hardy, Thomas. "The Dorsetshire Labourer," *Life and Art by Thomas Hardy* ed.
Ernest Jr. Brenneck. New York: Greenberg, 1966.

Howe, Irving. *Thomas Hardy*. New York: Barnes & Noble Inc, 1971.

King, Jeanette. *Tragedy in the Victorian Novel*. London: Cambridge UP, 1978.

Krammer, Dale. *Critical Approaches to the Fiction of Thomas Hardy*. London:
Macmillan, 1979.

Millgate, Michael. *Thomas Hardy : A Biography*. Oxford: Oxford UP, 1982.

Morgan, Rosemarie. *Women and Sexuality in the Novels of Thomas Hardy*.
London, New York: Routledge, 1991.

Steve, Shirley A. *The Decline of the Goddess: Nature, Culture and Women in
Thomas Hardy's Fiction*. Westport: Greenwood Press. 1995.

Tanner, Tony. "Colour and Movement in Hardy's *Tess of the d'Urbervilles*" in

the Victorian Novel : Modern Essays in Criticism ed. Ian Watt. Oxford: Oxford UP, 1978.

고세현. 『영미문학의 길잡이 1』. 서울 : 창작과비평사, 2002.

김보원. 「새로 읽는 고전. 『더버빌 가의 테스』 : 근대를 향한 여정」. 『영미문학연구회』 Vol. 17,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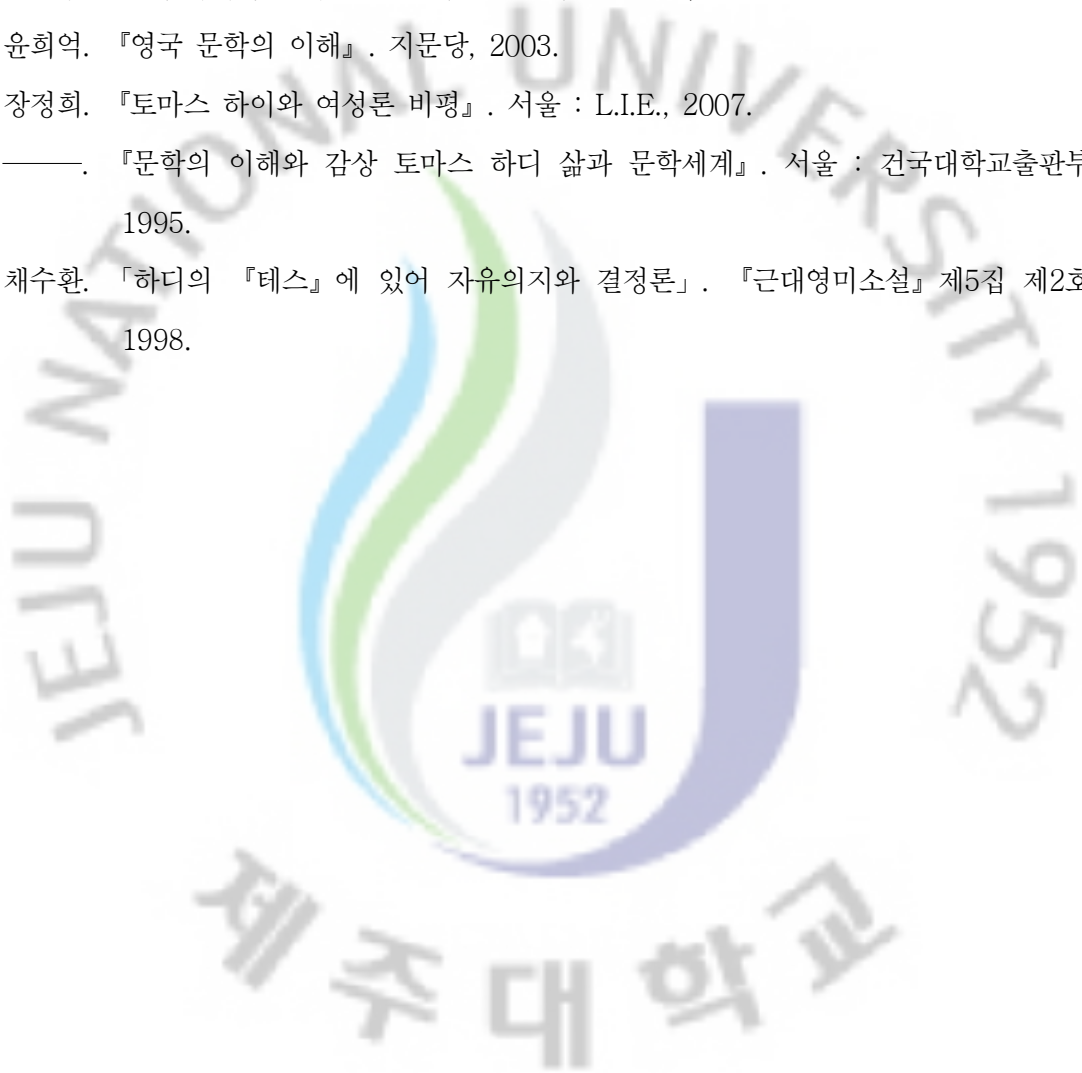
양영수. 『산업사회와 영국소설』. 서울 : 도서출판 동인, 2007

윤희익. 『영국 문학의 이해』. 지문당, 2003.

장정희. 『토마스 하이와 여성론 비평』. 서울 : L.I.E., 2007.

———. 『문학의 이해와 감상 토마스 하디 삶과 문학세계』. 서울 : 건국대학교출판부, 1995.

채수환. 「하디의 『테스』 에 있어 자유의지와 결정론」. 『근대영미소설』 제5집 제2호, 1998.



<Abstract>

Sexual Suppression and Resistant Consciousness
in *Tess of the D'Urbervilles*

Seong-Mi Kim
(Supervised by Professor Young-Soo Yang)

Major in English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The melioristic point of view has been discussed actively as well as earlier critics' pessimistic points of view on Thomas Hardy; both are summarized in this thesis. The origin of sexual discrimination, illustrated by Tess's experience in the book, shows a society where an androcentric sexual ideology was dominant and how her consciousness of this grows as well as her resistance to this and her sense of self-sovereignty.

In Hardy's works of literature, 'Immanent Will', namely a cosmic and uncontrollable power rules the universe and all of the tragic figures are faced with an ordeal. In this text can be seen anti-Christian tendencies and some elements that did not meet the ethical standards of the time. This is why his works of literature were criticized as blasphemous. These tendencies arose from his intention to describe the true picture of the rural communities of his period. These communities had become impoverished because of the fast inflow of capitalization. Hardy wanted to illustrate rapid industrialization was not always beneficial to everyone and how people were acting inhumane in these situations. However, Hardy didn't believe everything was determined by fate. Rather, he championed the necessity of change. Even though he acknowledged the duality of change, namely the potential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f it, he chose to focus

on the beneficial aspects of change. In addition he contemplated how to initiate this change or "to join the flower of change" because change is natural in the scheme of Hardy's universe. Hardy believed to do this one has to exert one's will power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in one's life.

Based on this premise the critical views of Hardy, both melioristic and pessimistic can be seen in a different light. In the second chapter, the typical melioristic point of view which insists that one try to seek a change of life for the better is explored. In addition, in this chapter another critical view where Hardy is regarded as a fatalist or a determinist because of the depressing aspects of his work is explored; the potential for a better life is always available thus putting an optimistic slant upon his work. In the third chapter, the cause of Tess's misfortune was examined: repressive sexual ideology. The difficulties she suffered were due to the fact that she was a woman living in the sexually repressive Victorian Age. In the fourth chapter, the growth of her self-consciousness is explored and how she overcomes external obstacles like religious, social and economical discrimination and internal obstacles like self-recriminations due to her own internal conventionality.

Thomas Hardy stirs up willpower and a resistance against suppression by suggesting that people can overcome a painful moment that initially seemed insurmountable like fate with an independent will.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10.